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발굴

연구 책임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연구 지원 백소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발굴

발행인 정정옥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쇄 디자인펌킨

I S B N 978-89-6432-624-4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과거에 젠더갈등이 법 제정이나 정책수립 과정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권력구조를 둘러싼 갈등이었다면, 변화된 젠더갈등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한 양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문제라는 인식으로 나타남.
- 오늘날의 젠더갈등 현상의 원인을 20대 남성의 보수화 또는 20대 남녀 간의 젠더갈등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함. 청년 여성뿐 아니라 청년 남성도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세대이기 때문임.
 - 경기도 20대 남녀의 성차별 인식 연구에 의하면, 20대 남녀는 성평등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부계 중심성, 직장 등 공적 영역의 참여, 가족내 역할분담, 여성성역할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음. 상대적으로 성평등정책 등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 남성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이 높았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젠더 문제와 이에 대응한 정책 요구는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특히, 문화변동이라고 할 만큼 청년세대의 생활양식과 문화의 변화는 기존 세대와 다르다는 점에서 청년세대의 가치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발굴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젠더갈등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젠더갈등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의 양성평등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은 젠더갈등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분석, 젠더갈등 대응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청년세대 젠더갈등 인식 및 정책 요구 조사,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정책 도출 및 제언임.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정책발굴 작업반(Working group)운영, 집단면접조사(FGI), 자문회의임.

다. 선행연구

1) 젠더갈등의 정의

- 본 연구는 젠더갈등을 ‘성역할규범 및 태도,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지향과 활동(페미니즘, 여성운동 등) 또는 관련 제도·정책(성평등정책 및 사업 등) 등과 관련해 나타나는 인식과 행동의 차이, 사회적 혐오 및 갈등 상황 등’ 으로 정의함.
- 젠더갈등은 다층성, 모호성, 변동성의 특성이 있음.
 - (다층성) 사회전반의 문화나 규범, 제도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서부터 개인의 습관이나 신념, 태도 등 차이로 나타나는 개인적 갈등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발견됨.
 - (모호성) 갈등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갈등주체가 모호함.
 - (변동성) 과거 가부장제 사회에서 불평등한 젠더 권력과 고착화된 성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과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집단 간의 충돌. 현대사회에서 이미 남성과 여성 간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젠더 이슈 부각이 오히려 남성의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인식. 남성들은 여성들을 경쟁자로 인식, 여성정책을 불공정 행위이자 역차별로 인식함.
- 본 연구는 젠더갈등을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2) 젠더갈등의 배경

- 젠더갈등 배경으로 근대적 남성성 해체,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 남성성 균열, 성평등정책의 남성 통합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음.
 - (근대적 남성성 해체) 유교가부장주의에 기반한 한국사회 근대적 남성성의 해체
 -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청년 남성은 능력주의에 따른 기회와 공정성의 강조, 청년 여성은 성차별 구조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자물쇠이자 청년 남성 역시 성차별 구조의 기득권자라는 인식
 - (남성성 균열) 대중문화를 적극 소비 향유하며, 외모를 가꾸며, 가사노동 수행에 적극적이고, 소통과 감성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남성성으로 변화. 병역 의무가 희생을 강요하고 생애계획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인식
 - (성평등정책의 남성 통합 필요성)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파트너십으로서 남성의 역할과 관계 정립 필요

2.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및 해외 사례 검토

가.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개요

- 전문가 워킹그룹은 젠더갈등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함.
 - 젠더갈등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자유롭게 토의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청년세대에게 나타나는 젠더갈등 대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음.
- 워킹그룹 참여자는 총 11명으로(연구진 제외) 경기도성평등위원회 위원 3인, 청년 정책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2인, 청년단체 및 네트워크 활동가 3인, 관계공무원 1인, 경기도 양성평등센터 관계자 2인으로 구성함.
- 전문가 워킹그룹은 당초 5회로 계획했으나 실제 총 6회 운영하였음.
 - 회의는 대면 및 비대면 회의를 병행했고, 서면 회의도 실시함.

[표 1] 전문가 워킹그룹 개최 현황

회차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내용
1	2023. 3. 17.	재단 202호	12	운영 목적 공유, 젠더갈등 원인 등 토의
2	2023. 3. 31.	온라인	13	젠더갈등 원인 및 대응방안 자유토의
3	2023. 4. 14.	재단 202호	11	젠더갈등 대응 방향성 토의 및 제안
4	2023. 4. 19.	온라인	12	전문가 정책 제안 발표
5	2023. 5. 31.	서면	9	전문가 정책 제안에 대한 서면 의견
6	2023. 6. 16. · 21.	온라인	11	정책 제안 최종 토의

자료: 연구진이 작성함.

- (1차 회의) 참여자들은 젠더갈등의 원인을 남성들의 피해의식, 남성 내부의 차이, 성차별 인식의 기회 부족, 소통의 부재, 성차별적인 관행과 문화, 성평등정책에 대한 남성의 참여 부족, 성평등정책의 효과적인 정책 전략의 미흡, 사회문제를 젠더갈등으로 왜곡하는 문제점 등을 토의하였음.
- (2차 회의) 1차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 정책의 방향을 토의하고, 해외 정책 사례로 독일의 남성과 소년을 위한 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함.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 기회 제공, 여성을 범주로 하는 정

책에서 젠더 정책으로 전환 필요성, 젠더 관점의 남성 참여 기회 확대 등이 논의되었음.

□ (3차 회의)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방향을 토의하고,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였음.

- (비전) 정책의 비전 및 지향가치로 공정, 공감, 공존, 포용, 다양성,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삶의 질을 높이는 양성평등, 젠더 기반 삶의 질 향상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 (목표) 정책 목표는 젠더갈등 완화와 젠더감수성 향상, 인권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성별화된 사회 구조 변화, 젠더 관계 변화 등이 논의되었음.

- (주요 방향) 정책의 주요 방향은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 실천 확산, 남녀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발굴·추진, 소년·남성을 통합하는 젠더정책 추진/소년·남성 맞춤 정책, 성평등과 남성성에 대한 지식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4차·5차 회의) 4차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5차 회의는 제안된 과제에 대한 서면의견을 취합하였음.

- 제안사업은 「양성평등 확장을 위한 AI(Appreciative Inquiry)의 활용」, 「인권과 연계한 젠더 이슈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성평등 아동, 영유아 놀이문화 확산 사업」,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커뮤니티 발굴 프로젝트」, 「우리 엄마 연금 찾아드리기 프로젝트」,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뛰하는 사람들」, 「남성 이해 프로젝트」,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 사업」,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협력사업」 등의 사업임.

□ (6차 회의) 연구결과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마무리하였음.

나. 해외 사례 검토

□ 해외 사례는 양성평등정책에 남성을 통합하기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음.

- (독일의 평등정책) 소년과 남성의 역할을 변화의 주체, 평등과 여성해방의 지지자 및 동반자, 다양성과 사회정의를 위한 연대 파트너로 규정하고 관련 부서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함.

- (캐나다 원탁회의) 성평등정책에 남성과 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캐나다 9개 지역에서 실시함. 남성과 소년들이 양성평등 발전에 참여하기 위한 핵심 원칙, 성공 사례,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참여자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함.

- (스페인 바스크지역) 남성참여정책 GIZONdiz는 성평등을 지지하는 소년·남성의 의식을 높이고, 참여와 관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대상의 교육을 참고할 수 있음.

3. 젠더갈등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과 의견 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 목적)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및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경험과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 요구를 조사하는 것임.
- (조사 대상) 정책 참여 활동 및 성평등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함.
 -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세대들은 관련 정책에 대한 좀 더 높은 수요가 있고, 문제보다는 해결에 집중하여 실행 가능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상 집단) 성평등에 관심있는 대학생 남녀, 페미니즘·성평등 활동을 하는 남성, 경기도 청년정책 참여기구에 활동하는 남녀, 경기도 성평등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남녀, 직장내 성평등활동 경험이 있는 남녀 등.
- (조사 내용) 젠더갈등 및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경험,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공감대 조성 방안, 성평등정책의 남성통합을 위한 과제, 성평등을 지지하는 다양한 참여 그룹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요구 등.
- (조사 참여자) 면접조사 참여자는 모두 25명으로 여성 10명, 남성 15명이었음.

나. 조사결과

- (젠더갈등 인식) 청년세대는 젠더갈등을 일상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상황부터 사회적인 갈등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인식하고 있음.
 - 페미니즘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 상황뿐 아니라 젠더 인식 격차에 따라 가족, 친구 및 지인, 대학생할, 직장,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 또는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차별 등을 모두 젠더 갈등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음.
 - 갈등의 원인을 성역할고정관념과 젠더 인식 격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며, 관련 이슈를 다루는 대화는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소통 및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차별경험) 청년들은 여자/남자로서 차별 또는 특권을 경험하고 있음. 가족, 학교, 일상, 아르바이트, 직장, 청년활동 등에서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거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여성을 특정 하는 정책은 차별이라고 인식함.

- 가족에서의 아들선호와 성역할고정관념, 학교에서 여성성/남성성 강화, 아르바이트에서 성별 분리, 직장내 지위와 업무 차별, 일상에서의 남성성/여성성 요구 등의 차별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평등 활동은 특권이자 소외라고 인식하며, 공간 및 환경의 성차별 관행도 문제로 인식했음.

□ (성인지 교육 기회) 청년들은 성역할고정관념 해소, 평등한 소통 및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성인지교육과 성평등 활동이 유익하고 의미있다고 인식함.

- 일상적인 공간 및 활동에서 접근 기회가 필요하고, 직장내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다양한 성평등 활동 경험이 유익했다고 인식함.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젠더공감 나누 등이 참여자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음.

□ (소통과 공감의 장 필요성)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성차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지식과 교육의 동반을 요구함.

- 젠더갈등은 자신이 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공감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과 소통의 장은 필요하며, 이때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양성평등주간에 경기도가 지향하는 성평등문화와 이슈를 중심으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고,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차별이 무엇인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생애별, 대상별 다양한 교육 실시, 다양성 존중,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남성 통합 주제)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통합을 위하여 다루기를 기대하는 주요이슈는 군대문제이며, 국가가 남성의 몸을 함부로 하는 점, 군대내 폭력 및 인권의 문제로 다루기를 기대함.

- 양성평등정책에서 주목할 정책 대상으로 인터넷의 영향을 받는 10대 남성청소년, 가사 및 돌봄 역할을 필요로 하는 남성, 비혼부 남성, 딸 있는 아빠, 가부장문화에 익숙한 중년세대 남성 등이 거론됨.

□ (다양한 활동 그룹 형성) 다양한 활동 그룹을 확산하는 방안으로, 양성평등 공모전 및 정책제안 등과 같은 활동참여 요구가 높았음. 성평등활동 그룹의 지속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평등 동아리활동 지원을 지속하며, 양성평등 콘텐츠 제작 지원, 청년 접근성 제고 및 플랫폼 구축, 기업의 성평등활동 지원, 협력사업을 통한 성인지교육 확대 등을 제안하였음.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연구결과 논의

- 청년들은 젠더갈등을 다층적,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별 갈등이 아닌, 젠더인식 격차에 따른 차별, 위계 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성역할고정관념 및 차별적 관행은 청년세대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정한 기회에 접근하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양성평등정책이 개인 모두의 잠재력 실현, 공정한 기회, 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 가치를 제시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면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논리가 필요함.
- 젠더갈등 대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양성평등정책이 도민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공정한 기회 축전에 기여하는 정책임을 제시하고 다양성 존중에 기반한 평등과 포용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함.
 - 둘째 성차별, 폭력 등에 대한 문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 확산하고,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평등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함.
 - 셋째, 양성평등을 위한 참여, 공론 기회를 활성화하고, 양성평등 활동 지원을 통해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방향이 되어야 함.

[그림 1] 연구결과 요약

원인	대응방향	정책 과제
소통 부재	소통과 공론의장 활성화	(소통) 양성평등 긍정모델 확산
성차별 인식 기회 부족 남성들의 피해의식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 인식 기회 제공	(시민) 미래세대 양성평등 시민역량 강화
성차별적인 관행과 문화 (성별 분리) 효과적인 정책 전략 미흡	여성범주 정책에서 젠더 정책으로 전환	(사회) 양성평등 공감 정책 확대
남성 참여 기회 부족 남성 내부의 차이(교차성)	젠더관점의 남성 참여 기회 확대	(참여) 양성평등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

주: 연구진이 구성하여 작성함.

나. 정책과제

- 본 연구에서는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제를 ‘양성평등 긍정모델 확산’, ‘미래세대 양성평등 시민역량 강화’, ‘양성평등 공감정책 확대’, ‘양성평등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 으로 제안하였음.
- 제안사업은 아이디어 정도이지만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기획 모임을 꾸려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제안사업 및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비고에 추진주체를 재단으로 제시한 사업은 연구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사업으로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후 도시군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

[표 2]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과제 제안사업(안)

정책과제	제안사업	정책대상	추진방안		비고
			단기	중기	
양성평등 긍정모델 확산	청년 양성평등 콘텐츠 발굴 공모전	청년	○		도
	양성평등 원탁 포럼	도민	○		도
	양성평등 팩트체크 사업	도민	○		도, 재단
미래세대 양성평등 시민역량 강화	게임, 미디어 등 디지털기반 인권, 성인지감수성 교육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청소년		○	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커뮤니티 발굴 프로젝트	청소년	○		도
	세대공감 프로젝트: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청년		○	도, 재단
	양성평등 아동, 영유아 놀이문화 확산 사업	영유아		○	도
양성평등 공감정책 확대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사업	청년	○		도, 재단
	양성평등 경영 협약 및 확산 사업	기업, 공공기관		○	도
	남성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및 지식구축	남성		○	재단
	소년과 남성 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도민	○		도
양성평등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 협력 사업	청년참여기구	○		도, 재단
	젠더공감 나우 시군 확대 및 남성보이스 구성	도민 남성	○		도, 시군
	온오프라인 자기돌봄 커뮤니티 형성 및 활동 지원	도민		○	도, 시군
	성평등교육 활동 협력사업	유관기관		○	재단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	8
가. 젠더갈등의 정의	8
나. 청년세대 젠더갈등	9
다. 젠더갈등 대응 방향	13

제2장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및 해외 사례 검토

1. 전문가 워킹그룹	19
가. 운영 개요	19
나. 주요 결과	21
2. 해외 사례 검토	34
가. 독일의 평등정책	34
나. 캐나다 원탁회의	39
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남성참여 정책: GIZONduz	42

제3장 젠더갈등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과 의견 조사

1. 조사 개요	47
가. 조사 방법	47
나. 조사 참여자	49

2. 조사 결과	50
가. 젠더갈등 및 차별 경험	50
나. 성인지교육과 소통방안	56
다. 남성 통합을 위한 주제	60
라. 다양한 활동 그룹 형성	61

제4장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논의	65
2. 정책과제	68
가. 양성평등 긍정모델 확산	68
나. 미래세대 양성평등 시민역량 강화	72
다. 양성평등 공감정책 확대	76
라. 양성평등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	80
마. 추진 방안	83

참고문헌	85
------------	----

부 록	91
--------------	----

표 목 차

[표 1-1] 젠더갈등 대응 관련 정책과제 제안 연구 요약	14
[표 2-1] 전문가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19
[표 2-2] 전문가 워킹그룹 참여자 구성	20
[표 2-3] 전문가 워킹그룹 개최 현황	20
[표 2-4] 1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23
[표 2-5] 2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26
[표 2-6] 3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젠더갈등 대응 양성평등정책 방향(안)	28
[표 2-7] 4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젠더갈등 대응 정책제안 발표	30
[표 2-8] 5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젠더갈등 대응 정책제안 발표	31
[표 2-9] 독일의 소년·남성을 위한 평등정책	37
[표 2-10] 소년과 남성 참여를 위한 주요 원칙: 캐나다 원탁회의	41
[표 3-1] 집단면접조사 대상 및 참여 인원	47
[표 3-2] 조사 내용	48
[표 3-3] 조사 참여자	49
[표 3-4] 젠더갈등 경험 및 상황	51
[표 3-5] 차별 경험	54
[표 3-6] 성인지교육 경험	57
[표 3-7] 소통과 공감의 장애에 대한 요구	59
[표 3-8] 남성 통합을 위한 주제	60
[표 3-9] 다양한 활동 그룹 형성	62
[표 4-1]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사업 현황	69
[표 4-2] 도민대상 성인지교육 사업 현황	72
[표 4-3]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양성평등 사업 현황	77
[표 4-4] 경기도양성평등센터 지역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현황	81
[표 4-5]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과제 제안사업(안)	84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7
[그림 2-1]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내 평등국의 조직도	34
[그림 2-2] 파트너십에 기반한 평등정책 전략과 목표	35
[그림 4-1] 연구결과 요약	67
[그림 4-2] AI식 접근 단계	6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사회에서 ‘젠더갈등’은 청년 남녀 간의 인식 격차의 문제를 넘어 실제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책 결정을 초래할 정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김원정, 김선아, 정윤미, 이성준, 윤빛나리, 2021, p. 97).
 - 제20대 대선에서 20대 남녀 간의 젠더 균열은 이념, 지역, 세대, 정당 일체감, 정책적 태도 등 다른 정치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청년세대의 정치적 균열이 선거 국면을 맞이하여 정치권의 선거 동원 전략과 맞물리면서 페미니즘 이슈가 공론화되었음(김한나, 2022, pp. 315-331).
- 지난 2022년 2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우리사회의 남녀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매우+대체로 심각)는 응답이 71%로, 2021년 심각하다는 응답(63%)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남녀 갈등 인식 정도가 높아서 20대 여성 92%, 남성 87%가 남녀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음(이소연, 2022).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민 생활변화 조사(정혜원, 김미정, 노경혜, 2021)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남녀갈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도민의 6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남녀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34%)에서 20대가 43.4%(여성 44%, 남성 42.9%)로 가장 높게 응답한 것과는 동일한 양상으로 청년세대가 젠더갈등을 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과거에 젠더갈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불평등한 젠더 권력과 고착화된 성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과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집단간의 충돌로 이해되었음(Faludi, 1991; 김봉철, 신별, 2022, p. 71).
 -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제도 폐지, 고용에서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 법 제정이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도전을 둘러싼 남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나타남(변화순 외, 2005; 이재경, 2013; 류연규, 김영미, 2019, pp. 135-136).
- 변화된 젠더갈등은 법 제정이나 정책수립 과정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권력구조를 둘러싼 갈등이기 보다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한 갈등의 양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문제라는 인식으로 나타남(류연규, 김영미, 2019, p. 136).
 -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이미 남성과 여성 간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젠더 이슈 부각이 오히려 남성의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과 관련됨(김기동, 정다빈, 이재목, 2021, p. 10).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므로, 여성을 우대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남녀 구분없이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함(김한나, 2022, p. 311).

- 특히 역차별 주장은 청년세대 담론과 깊게 결합하여 ‘불쌍한 20대 남성들’ 과 같이 남성을 자연스레 피해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청년 여성-페미니스트 세대가 광장에서 외치는 저항의 목소리는 그저 집단이기주의로 폄하되기도 함(정성조, 2019).
 - 남성들은 여성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여성정책을 불공정 행위이자 역차별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김보명, 2019; 마경희, 김문길, 추지현, 김선기, 2020).
- 그렇지만, 오늘날의 젠더갈등 현상의 원인을 20대 남성의 보수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20대 남녀 간의 젠더갈등 내지는 20대 남성의 젠더의식 때문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어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함. 20대 남녀의 성평등의식의 격차 역시 다른 세대 남녀에 비해 크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임(최종숙, 2020).
 - 청년 여성뿐 아니라 청년 남성도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세대로서, 전통적인 가정내 성역할에 대해서 청년 여성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지만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서 청년 집단 자체가 차이없이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음(박성경, 2020).
- 젠더갈등이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젠더갈등 현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젠더갈등 이슈의 중심이 되는 청년세대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20대 남녀의 성차별 인식 연구에 의하면(임혜경, 2020), 20대 남녀는 성평등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부계 중심성, 직장 등 공적 영역의 참여, 가족내 역할분담, 여성 성역할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지만, 성평등정책 등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 남성성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젠더 문제와 이에 대응한 정책 요구는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젠더갈등이 남성 역차별 논리를 중심으로 확산된 배경으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지만, 남성 통합방안에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추진한 여성정책과 남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정책대상에 남성을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며(마경희, 문희영, 김현경, 박지성, 2016), 성평등

정책의 주체로서 남성 청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역할고정관념에서 여성들의 세대 간 격차도 현격하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성별갈등은 문화적 맥락의 세대갈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계층갈등, 정치적인 이념갈등과 연결해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홍찬숙, 2022).
- 그리고 문화변동이라고 할 만큼 청년세대의 생활양식과 문화의 변화는 기존 세대와 다르다는 점에서 청년세대의 가치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발굴이 필요함.
 - 청년 남성들은 가사노동에도 적극적이며, 소통과 감성을 중시하며, 부드러운 남성성을 추구하면서 병역의무가 생애계획에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희생적이라고 인식함(정현백, 2021).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정책이 청년세대의 문화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바라는 청년세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갈등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젠더갈등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의 양성평등정책을 발굴하는 것임.
 - 젠더갈등 대응정책은 경기도 및 도의회 관심이 높은 사안이면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함.
- 그렇지만 갈등의 이해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갈등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변화순 외, 2005, pp. 3-10), 젠더갈등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응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연구가 될 것임.
 - 본 연구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기 위하여 ‘젠더갈등 대응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고자 함. 워킹그룹은 청년세대 주요 이슈를 토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함께 숙의하는 장으로 활용될 것이며, 다양한 논의와 자유로운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될 것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젠더갈등’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
 - 젠더갈등 관련 학술논문, 정책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 조사(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 소년과 남성을 위한 정책 등)

- 젠더갈등 대응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Working group) 운영
 - 젠더갈등 현상 및 원인에 대한 토의
 -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례 검토 및 아이디어 토의
 -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 제안 및 추진 방안 검토

- 청년세대 젠더갈등 인식 및 정책 요구 조사
 - 청년세대 성차별 경험 및 젠더갈등 대응 정책 수요조사

-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정책 도출 및 제언
 - 경기도 정책의 함의 도출 및 정책과제 제시

나.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학술지, 정책연구보고서, 행정자료 등 문헌자료 조사 및 분석
 -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조사 및 검토

- 정책 발굴 작업반(Working group) 운영
 - 목적 : 젠더갈등 원인과 대응정책 발굴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 대상 : 청년, 현장전문가, 전문가, 공무원 등 총 11명
 - 내용 : 젠더갈등 대응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개진 및 토의, 정책과제 발굴, 연구자문



- 집단면접조사(FGD)
 - 목적 : 젠더갈등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
 - 대상 : 청년 30인 이내
 - 방법 : 집단면접조사
 - 내용 : 워킹그룹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정책대상자 수요 조사
- 자문회의
 - 목적: 워킹그룹 구성,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자문
 - 대상: 총 2회(전문가 4인*1회 / 전문가 5인*1회)
- 연구 수행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단계	연구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 수립 • 연구계획보고회, 보고회 결과의 반영 	1월
2단계	문헌연구 및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 자문회의 •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2월
3단계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킹그룹 회의 운영 •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및 토의 • 조사에 대한 자문·협력 	3-6월
4단계	집단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 조사결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4-6월
5단계	보고서 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최종 집필 	6월

3. 선행연구

가. 젠더갈등의 정의

- 갈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목적, 지각 또는 가치 충돌로 인해 유발된 강한 의견 불일치(Goss & O’ Hair, 1988; 김봉철, 신별, 2022, p. 70에서 재인용), 또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 권력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에서 발생함(서문기, 2004; 류연규, 김영미, 2019, p. 134).
- 젠더갈등은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불평등한 젠더 권력과 자원의 배분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대립, 기존의 성역할 규범과 가치관을 둘러싼 갈등 및 충돌,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식 격차로 인한 갈등’ 으로 정의됨(류연규, 김영미, 2019, p. 135 ; 김봉철, 신별, 2022, pp. 70-71).
- 남성과 여성간의 ‘성대결’ 로 프레이밍(류연규, 김영미, 2019; p. 134) 되기도 하며,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을 넘어 그들이 구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갈등을 의미함(김봉철, 신별, 2022, p. 71).
- 젠더갈등은 개인들 간, 가족 내에서, 사회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음. 사회전반의 문화나 규범, 제도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서부터 개인 간 습관이나 신념, 태도 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에서의 개인적 갈등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발견됨(류연규, 김영미, 2019, p. 135).
- 비교적 범주가 명확한 이념, 계층, 세대, 지역 등 다른 인구나사회학적 범주와 교차(intersect)하거나(이재경, 2013; 김봉철, 신별, 2022, p. 71에서 재인용),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와 역할 변화, 새로운 사건을 둘러싼 논쟁 등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함(변화순, 양애경, 이선주, 문희영, 2011; 김봉철, 신별, 2022, p. 71).
- 과거의 젠더갈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불평등한 젠더 권력과 고착화된 성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과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집단 간의 충돌(Faludi, 1991; 김봉철, 신별, 2022, p. 71)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미 남성과 여성 간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젠더 이슈 부각이 오히려 남성의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인식으로 나타남(김기동 외, 2021, p. 10). 남성들은 여성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여성정책을 불공정 행위이자 역차별로 인식함(김보명, 2019; 마경희 외, 2020).

- 그러나 갈등의 이해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갈등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변화순 외, 2005, pp. 3-10), 젠더갈등은 가시화되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류연규, 김영미, 201.: p. 135).
- 본 연구는 젠더갈등을 ‘성역할규범 및 태도,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지향과 활동(페미니즘, 여성운동 등) 또는 관련 제도·정책(성평등정책 및 사업 등) 등과 관련해 나타나는 인식과 행동의 차이, 사회적 혐오 및 갈등 상황 등’ 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젠더갈등을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나. 청년세대 젠더갈등

1) 젠더갈등과 청년세대 담론

- 젠더갈등에서의 청년세대 담론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에 치우쳐 사회구조적 젠더 불평등, 성별에 근거한 사회구조적 인식을 충분히 담지 못하며, 왜곡된 젠더갈등 논의는 실질적으로 청년세대가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오히려 가릴 우려가 있음.
- 정성조(2019)는 청년세대 담론을 젠더화된 세대 게임으로 설명하였음.¹⁾ 청년세대를 둘러싼 젠더갈등 논의는 구조적 젠더 불평등을 남녀 갈등의 차원으로 단순화하는 논의 지형에 붙들려 있으며, 공정성의 논리를 따라 작동하는 ‘청년세대’ 담론은 마치 젠더 자체를 갈등 요소인 것처럼 부각시키면서 다층적인 불평등의 요소를 은폐하는 점을 지적함.
 - 남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부닥친 것은 한편으로 기성세대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성의 몫을 다 빼앗아가는 이기적인 여성들 때문이며, 청년 여성-페미니스트 세대가 광장에서 외치는 저항의 목소리는 그저 집단이기주의라면서, ‘불쌍한 20대 남성들’ 은 자연스레 피해자로 자리매김 되도록 함. 젠더화된 세대 게임의 효과는 청년세대 문제에 있어 계급 문제나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다양한 요소를 은폐하며, 젠더가 발생시키는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함(정성조, 2019).

1) 특정 코호트가 역사적 계기나 공동의 경험을 통해 세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과 다소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계급이나 자본과 같은 문제를 다른 세대를 비난하는 데 전유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세대 게임’ 이 존재한다는 것(정성조, 2019).

- 류연규, 김영미(2019)는 현재의 젠더갈등은 불평등과 차별경험의 젠더차이, 경험에 대한 공유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인식의 차이가 확대된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젠더갈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구조적 젠더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성을 제안함.
 - 젠더불평등 인식, 성차별 경험과 젠더갈등 인식의 관계에서 성별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성별에 근거한 사회구조적 인식이 젠더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은 조절변수로서 작용함(류연규, 김영미, 2019).
- 박선경(2020)에 따르면, 청년세대내 젠더 격차는 과장되어 있으며 청년 여성뿐 아니라 청년 남성도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세대임.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자료(2003~2018)의 자기평가이념과 정책태도에서, 전통적인 가정내 성역할에 대해서 청년 여성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지만,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서 청년 집단 자체가 차이없이 부정적 생각을 가졌으며 청년 남성이 가장 비판적임.
 -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간 자기평가이념의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며, 청년세대 여성과 남성 간 이념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음(박선경, 2020).
- 20대 남성의 성평등의식은 다른 세대 남성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임.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의식이 특히 30대 남성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2040세대의 남녀를 세대별, 젠더별로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의 성평등 의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이 높음(최종숙, 2020).
 - 20대 남녀의 성평등의식의 격차가 다른 세대 남녀에 비해 크다고 하기 어렵고, 한국 사회의 젠더문제가 심각하다면 20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최종숙, 2020).
- 경기도 20대 도민의 성차별 인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게 차별이 있다는 인식에서 있어 성별차이도 있지만, 직업, 소득수준, 차별경험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성차별 경험이 있는 20대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여성차별 인식이 높았음(임혜경, 2020).
 - 다만 성역할태도에서 여성권리요구, 남성의 가족부양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가 큰 항목이었으며, 20대 청년 여성들은 구체적인 성차별 경험에 근거해 사회의 성차별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려는 변화의 의지가 강한 반면에, 남성은 경제적 생계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신자유주의 이념과 결합하면서 징병제도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남. 여전히 전통적 성별분업을 중심으로 성평등정책을 이해하고 있으며, 성평등한 남성성 정립의 기회가 부족하였음(임혜경, 2020).

- 김봉철, 신별(2022)은 젠더 이슈를 성별 구분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반된 이해 간 지속적 충돌,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이 젠더갈등을 발생한다고 분석함.
 - 여성들이 옹호하는 이슈(여성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인식 및 여성지원 정책)에서 성별에 따른 근본적 인식 차이가 갈등의 원인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나 혐오조장과 관련된 여성 지향 이슈에서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불신이 있고, 남성의 희생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남성 지향 이슈에서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오해가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 됨(김봉철, 신별, 2022).
- 한편, 현재의 청년세대 젠더갈등 담론은 청년세대의 목소리보다 기성정치인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언 중심으로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는 방식으로, 사라지지 않는 군대 폭력, 연금이나 주택정책 등 청년세대가 소외된 사회적 자원의 분배, 일상적 성폭력에 대한 공포,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과 이로 인한 유리천장, 경력단절 두려움과 같은 절실한 사회적 논의를 회피하고 있음(홍지아, 2022).
 - 여초,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대남, 이대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발언권이 부여되며, 젠더갈등 담론이 생산되고 충돌하는 현장에서 젠더갈등 담론을 생산하고 비판하는 주체들 가운데 정치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젠더갈등 담론의 생산은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홍지아, 2022).
- 청년세대 젠더갈등 담론에 관한 연구들은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에 성별의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 젠더정체성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분석하고 있음. 또한 현재의 젠더갈등 논의가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전략적 선택으로 과장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계급, 젠더, 세대에 따른 구조적 차별의 개선과 공정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를 축소해, 사회적 재생산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홍지아, 2022).

2) 청년세대 젠더갈등의 배경

- 젠더갈등의 배경과 원인으로서는 유교가부장주의에 기반한 한국사회 근대적 남성성의 해체,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 남성성 균열과 문화 변동, 성평등정책의 남성 통합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서구사회의 근대적 남성성은 근대 시민계급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사회의 남성성은 식민지배, 분단, 산업화 과정에서 유교가부장제, 유교가족주의 남성성의 특징으로 나타남(정현백, 2021; 홍찬숙, 2022).
 - 외환위기, 신자유주의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의 지위가 변화했지만, 여전히 가부장제가 남성을 뒷받침하면서 고개숙인 아버지 담론에 기대어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토론하기보다 정서화하면서 남성의 고통을 가족화 하고 있음(정현백, 2021).
- 유교가족주의²⁾ 남성성은 표준노동모델을 박탈당한 남성들이 성역할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지 못하고, 증가하는 생애 위험에 대한 불안의 피해자로 그려지고, N포세대 등 청년 남성의 경제적 곤란이라는 세대 담론에 집중하도록 했음(홍찬숙, 2022).
 - 남성 청년들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남녀가 ‘사회적 기회를 둘러싼 경쟁관계’ 라는 인식하에 경쟁의 절차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청년 여성은 개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지만 성차별적 구조가 그것을 막는 자물쇠이며 청년 남성 역시 성차별 구조로 이득을 취하는 기득권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홍찬숙, 2022).
- 청년문화 부상, 문화 혁명이라고 할 만큼 1990년대 이후 청년세대의 문화는 변화하고 있으며 남성성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 대중문화를 적극 소비 향유하며, 외모를 가꾸며, 가사노동 수행에 적극적이고, 소통과 감성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남성성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들은 병역 의무가 희생을 강요하고, 생애계획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정현백, 2021).
 - 한편 가부장과의 거리두기, 남성만의 생계부양모델의 약화, 좀 다른 남성되기(외모 가꾸기) 등의 새로운 남성성의 공존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적인 남성성 선호가 성차별주의를 해소하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음(김엘리, 2020).
- 젠더갈등의 해소를 위해 성평등한 남성성의 정립이 필요하고, 남성과 함께 가는 페미니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실천이 중시되고 있음. 페미니즘은 남성 역시 남자다움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으로 소녀와 여성이 바라는 모든 권리를

2) 홍찬숙(2022)은 유교가족주의를 서구 기능분화 사회의 핵심적 사회원리인 개인주의에 맞서서 동북아시아 근대화의 방향을 조율하는 최종적 사회원리로 설명하였음.

소년과 남성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남자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어 성차별주의에 근거하지 않은 정체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함(정현백, 2021).

- 남성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전략적 사고를 통해 가부장제 사회에 사는 누구라도 성차별 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페미니즘이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함께 소통할 필요가 있음(강준만, 2018).
- 그리고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파트너십으로서 남성의 역할과 관계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기존에 추진한 여성정책과 남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정책대상에 남성을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마경희 외, 2016).

다. 젠더갈등 대응 방향

- 젠더갈등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시민교육, 양성평등정책의 남성통합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시민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임. 차별과 혐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단기간에 해법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헤아리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반성적 성찰이 내면화되어야 함(정재원, 우대식, 2022, p. 674).
- 남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교육, 남성과 여성의 젠더 사회화 탐색하기, 실수친화적 안전한 공간 만들기 등을 위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하여 남성의 태도와 행동 변화, 폭력근절을 위한 남성 참여 조직화, 남성 건강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이 필요함(마경희 외, 2016).
- 남성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성평등 어린이집·유치원 시범사업 실시와 확대,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직업 탐색 프로그램, 남학생 대상 남성성 성찰 프로그램, 남성에 초점을 맞추는 일·가족 양립 제도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 폭력근절을 위한 남성 참여 조직화는 성평등 관련 남성 소모임 활동·단체 지원, 남성 주도 반폭력 캠페인 지원, 반폭력 여성운동의 남성 대상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남성 건강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남성 건강에 대한 중장기 조사 연구, 남성건강네트워크의 조직화와

지원이 필요하고, 기타 남성종합지원 서비스 및 연구, 성평등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함(마경희 외, 2016).

- 기타 젠더갈등 대응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는 연구는 김원정 외(2021), 강희영, 최유정(2019), 김정란(2019), 임혜경(2020), 고영란, 최나리, 김안나(2021), 정다운, 옥소연(2022) 등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음.

[표 1-1] 젠더갈등 대응 관련 정책과제 제안 연구 요약

구분	정책 방향
성평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를 여성, 남성에 맞추기보다 젠더에 기반한 포괄적인 성평등정책으로 범주를 재구성 - 여성을 특정하는 정책이 아닌 젠더 형평성 제고 방향으로
성평등정책 홍보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정책의 내용, 시행 배경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 청년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직장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문화가 평등하지 못하면 조직내 구성원간의 인식차이로 인한 갈등, 채용 등의 차별 원인이 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연계 부모대상 성인지갑수성 교육 - 교사 및 교장, 교감 대상 성인지교육 - 청년 대상 페미니즘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 - 정보 왜곡 및 편향되지 않는 정보 제공 - 학생 대상 생애주기별 성인지교육 - 초중고 성평등교육 의무화 - 성인지교육 일상화 - 교육과정, 대학내 관련 강좌 - 마을단위 기관 - 평생교육으로서의 성평등교육 : 민주시민교육
성평등교육 내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적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차별 및 젠더폭력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성평등교육 및 캠페인 -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이도록 하거나 여성의 관점만을 반영하는 교육 내용 점검. 교육생의 상황을 이해, 소통하는 교육 - 차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 반 혐오 등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 - 성평등 및 인권 관련 공모전 등을 통해 성평등 및 젠더 관련 구체적인 경험을 꺼내어 이야기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성평등 교수법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 자기 삶에 대한 성찰, 교사, 강사 역할 중요
남성 불평등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제도 개선

젠더 이슈에 대한 공론장 활성화	- 온라인 중심 정보 습득과 담론 형성의 한계 극복 위해 공론의 장 마련
청년의 자발적 활동 지원	- 20대 청년의 정책참여와 모니터링 활동 지원 - 젠더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 - 청년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 - 페미니즘 모임, 소모임 활동 지원(활동비, 공간지원) - 대학 연계 페미니즘 연계 등 다양한 배움의 장 - 청년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내 문화활동 및 정치활동 지원 - 대학내 성평등교육 및 성평등 기구 강화
청년정책 재구성	- 청년정책에 20대 여성의 구직, 임금에서 차별, 젠더폭력 정책을 포함 - 가족에서 개인의 인생주기를 고려한 정책 설계 - 개인중심 정책 : 비혼, 무자녀, 동거 등 청년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 제공 - 젠더관점의 청년정책 : 청년 여성들의 안전, 임금 차별, 일상생활균형, 직장내 성평등문화 확산 등 - 청년 대상 정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 주기적으로 청년의 젠더인식 변화를 파악 - 청년기본조례에 청년의 젠더인식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명시 - 성인지교육 시행을 명시화 청년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와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과 연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사각지대 해소
정치문화 개선	-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별 혐오 발언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청년에게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을 씌어 갈등을 극대화 함, 젠더인식 차이를 줄이기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문화로 개선
언론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언론에서 조회수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보도, 젠더인식 차이가 갈등으로 부풀려짐. 젠더갈등의 유발하는 언론보도의 자정 유도
여성혐오 표현,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개념 확대 등 법제도 강화(중앙)	-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에 대한 제도적 규제 - 성희롱 개념에 온라인상 성희롱, 사이버 범죄 유형에 사이버 성폭력 명시 - 여성혐오 및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성혐오 표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방안	- 지자체 차원의 혐오 표현 금지 조례 제정 - 2016년 오사카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 법적 처벌은 없으나 혐오 표현 의미, 억제를 위해 제정 - 2019년 가와사키시 차별이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초안 발표

자료: 강희영, 최유정(2019), 김정란(2019), 임혜경(2020), 고영란 외(2021), 김완정 외(2021), 정다운, 옥소연(2022).

II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및 해외 사례 검토

1. 전문가 워킹그룹
2. 해외 사례 검토

1. 전문가 워킹그룹

가. 운영 개요

1) 운영목적 및 구성

- 전문가 워킹그룹은 젠더갈등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함.
 - 젠더갈등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자유롭게 토의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고자 하였으며, 청년세대에게 나타나는 젠더갈등 대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음.
 - 워킹그룹(working group)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특정 주제 분야에 관련한 토론이나 활동에 초점을 둠(구글 위키백과, 검색일 2023. 5. 23.).
- 전문가 워킹그룹 참여자의 역할은 정책 발굴을 위한 토의 및 의견제시, 관련 사례 소개, 정책과제 제안, 연구 관련 조사에 대한 자문 및 협력 등임.
- 워킹그룹 참여자는 총 11명으로 경기도성평등위원회 위원, 청년정책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청년단체 및 네트워크 활동가, 관계공무원, 경기도양성평등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함(표 2-1) 참조.
 -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3인, 청년정책 전문가 2인, 청년 활동가 3인, 경기도 공무원 1인, 경기도양성평등센터 2인임.

[표 2-1] 전문가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구분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전문가	김태환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운영위원(청년정책네트워크)
	니수련	청년너울 여성위원장
	문성은	자주스쿨 성교육 강사(경기도성평등위원회 위원)
	은 석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은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장
	최중진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경기도성평등위원회 위원)
	한선경	씨닷 대표이사(청년네트워크 추진)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경기도성평등위원회 위원)
공무원	백경미	경기도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주무관
양성평등센터	김선희	재단 경기도양성평등센터 센터장(선임연구위원)
	손지성	재단 경기도양성평등센터 연구원

자료: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진에서 작성함.

- 전문가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였으며, 여성이 63.6%로 좀 더 많았음.

[표 2-2] 전문가 워킹그룹 참여자 구성

전체인원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 활동가		경기도 공무원		경기 양성평등센터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1 (여7, 남4)	2	1	1	1	2	1	1	-	1	1

자료: 연구진이 작성함.

2) 회의 개최 현황

- 전문가 워킹그룹은 당초 5회로 계획했으나 실제 총 6회 운영하였음.
 - 1차 회의는 운영계획 및 젠더갈등 현상 전반에 대해 토의했고, 2차 회의에서 젠더갈등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함. 3차 회의는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목표와 가치, 주요 대응 방향을 토의했으며, 관련 해외 사례를 공유함. 4차 회의에서는 지난 차시 토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정책제안 발표와 해외 사례 공유가 있었음. 5차 회의는 서면회의로 4차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및 추가 제안을 서면으로 수렴했음. 6차 회의는 6월 16, 21일에 나누어 실시했으며 최종 정책제안에 대한 자문을 들었음.
- 회의는 대면 및 비대면 회의를 병행했고, 서면 회의도 1회 실시함.
 - 회의 관련 세부 개최 현황은 <표 2-3>와 같음.

[표 2-3] 전문가 워킹그룹 개최 현황

회차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내용
1	2023. 3. 17.	재단 202호	12	운영 목적 공유, 젠더갈등 원인 등 토의
2	2023. 3. 31.	온라인	13	젠더갈등 원인 및 대응방안 자유토의
3	2023. 4. 14.	재단 202호	11	젠더갈등 대응 방향성 토의 및 제안
4	2023. 4. 19.	온라인	12	전문가 정책 제안 발표
5	2023. 5. 31.	서면	9	전문가 정책 제안에 대한 서면 의견
6	2023. 6. 16/ 21.	온라인	11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 제안 최종 토의

자료: 연구진이 작성함.

나. 주요 결과

1) 1차 회의 결과

- 1차 회의는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워킹그룹 운영계획 논의, 청년세대 젠더갈등 이슈 전반에 대해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젠더갈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참여자 토의를 진행하였음.
- 젠더갈등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하여 토의된 내용은 남성들의 피해의식, 남성 내부의 차이, 성차별 인식의 기회 부족, 소통의 부재, 성차별적인 관행과 문화, 성평등정책에 대한 남성의 참여 부족, 성평등정책의 효과적인 정책 전략의 미흡, 사회문제를 젠더갈등으로 왜곡하는 문제점 등이었음.
- **(남성 피해의식)** 남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언어 및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남학생이 피해를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음. 그리고 군대 및 남성 육아 휴직 등과 관련한 남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음.
 - 대학내 성평등 동아리 및 강좌를 지원하여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고, 남성의 목소리 수렴, 평등한 남성성을 추구하는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함.
- **(남성 내부의 차이)** 남성자살률, 일자리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30대 남성과 같이 청년 내부에 서로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젠더내 세대, 계급, 학력,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차별과 남성 내부의 나이, 계급에 따른 발언권의 차이 등 남성 내부의 차이와 교차성에 대한 고려 없이 남성 집단을 일반화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년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직장내 위계 허물기와 같이 의제중심 대응, 남성의 문제를 다루는 공론장 마련, 성평등정책의 가치를 다양성, 형평성, 포용의 DEI(Diversity, Equality, Inclusion) 원칙 추구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안됨.
- **(성차별 인식 기회 부족)** 남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성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고 논의함. 여전히 우리사회에 면접, 선발 등에서 여성 차별이 있지만 관련 인식이 부족하고, 여학생들도 자신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함.
 - 성차별 현실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전달 방식의 개선, 성차별 구조를 가시화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액션리서치와 같은 정책 발굴 참여, 젠더 인식교육 기회가 필요함.

- **(소통 부재)** 소통 측면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있으나 그 외 사람들과의 소통, 교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민주적 토론 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타인의 경험, 차별에 대해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나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타인을 이해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
- **(성차별적인 관행과 문화)**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공간, 환경의 분리로 인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었음.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남성 이용자 배려가 부족하며, 성역할규범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남성의 가사, 돌봄 참여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됨.
 - 성별 시설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청년 여성과 남성들의 생활적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세대 의견 수렴 확대 등이 제안됨.
- **(남성 참여 부족)** 청년참여기구 등 청년 남성의 의사결정 참여는 높지만 실제 정책 수혜 및 정책 참여는 여성이 좀 더 활발함. 남성 커뮤니티도 여성 커뮤니티와 비교해 활성화되지 않으며, 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남성 참여는 저조함. 남녀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접근성이 낮은 점도 인식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
 - 다양한 경험, 활동, 프로젝트를 통해 젠더감수성 인식 향상 기회 마련, 남성 청(소)년 참여를 위한 사업설계, 다양한 접근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정책 전략의 미흡)** 젠더갈등 및 성평등정책은 ‘갈등’, ‘여성’, ‘남성’, ‘젠더’ 와 같은 용어에 갇혀서 실제 개개인의 삶의 문제에 주목하지 못하며, 남성을 주체적인 역할에 두지 못하고 있음. 또한 변화하는 청년세대의 가치와 문화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음.
 -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라는 공감대 형성, 소통 프로젝트 추진,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 제시, 성평등거버넌스의 남성 할당, 시민 참여 등이 필요함.
- **(사회문제를 젠더갈등으로 왜곡)** 마지막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를 젠더갈등으로 프레임링 하는 문제가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심화·과장되고 있으며, 노동의 문제, 인식차이와 같은 청년 현실의 문제를 젠더갈등으로 프레임화하며, 젠더갈등 논의는 잘못 기입된 청구서와 같다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젠더갈등 문제로 왜곡, 과장하는 점도 논의함.
- 1차 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2-4>과 같음.

[표 2-4] 1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구분	젠더갈등 원인		대응방안
	세부내용		
남성들의 피해의식	-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식(여학생의 언어 능력, 학업 성적 우수 등)		-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정책 발굴 - 대학내 성평등 동아리 및 대학 강좌 지원 등
	- 남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이 부족했음 (군대, 남성 육아휴직 등)		- 남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정책
	- 성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 장이 부족		- 평등한 남성성을 추구하는 남성을 위한 정책
남성 내부의 차이 (교차성)	- 남성 자살률도 높지만 주목되지 않음 - 일자리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30대 남성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이 어려움		
	- 현 문제가 젠더갈등의 문제인지 진단해야 함(젠더 내 세대갈등, 계급, 학력,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음)		-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 중심 대응(직장내 위계, 디지털 폭력 등)
	- 이대남이라는 프레임으로 남성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가 가려짐 - 나이, 계급, 발언권의 차이 등을 이해해야 함		- 남성의 문제를 다루는 공론장이 필요 - DEI(Diversity, Equality, Inclusion)의 원칙을 성평등정책에 반영
성차별 인식 기회 부족	- 여전히 면접, 선발 등 평가 관련 의사결정권자의 여성비율이 낮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		- 성차별 현실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하고, 전달방식을 개선해야 함
	- 여학생들도 자신이 겪고 있는 차별, 배제를 인식 못함 -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 필요		- 성차별 구조를 가시화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액션리서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직접 정책 발굴 기회 마련
	- 인식에 대한 교육 필요 -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좀 더 많아져야 함		- 교육 기회 제공
소통의 부재	- 여성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성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람들과의 소통, 교류 기회가 적어짐		- 타인의 경험, 차별에 대해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필요(토론 규칙) - 나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필요
성차별적인 관행과 문화	-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요가, 필라테스)의 남성 이용자 배려가 부족함 - 시대에 따라 남녀가 취약한 부분이 달라짐 - 남성의 가사, 돌봄 참여에 대한 요구에 따른 사업 필요		- 성별 시설 불균형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 필요 - 청년 남성, 여성의 생활적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세대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함(합의회의 방식 추천)

<p>남성 참여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남성의 의사결정 참여는 높지만 실제 정책 수혜 및 참여는 낮음(여성들은 정보검색,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지만 남성들은 관련 활동에 소극적) - 성평등 관련 프로그램에 남성 참여가 저조 -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고려하며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 구상 필요 - 성평등을 위한 사업에서 남녀 구분없이 사업을 추진해도 여성이 좀 더 적극적임 -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경험, 활동, 프로젝트를 통해 젠더감수성 관련 인식 전환의 기회 필요 - 남성 청(소)년 참여를 위한 디자인 필요(Next Gen Men과 같이 스포츠 활용) - 사업 성격에 따라 공통, 개별사업을 추진
<p>효과적인 정책 전략의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갈등으로 접근할 경우 참여 독려가 어려움 - 청년들의 일과 노동, 안전과 같은 관심주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여성, 남성, 양성이라는 언어에 가려져 있는 개인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함 -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해체할 수 있어야 함 - 성, 젠더라는 용어 자체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가치로 접근해야 함 - 같은 남성이 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 진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 저출생 문제에서도 미혼부, 다양한 가족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추진 -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 제시 - 성평등정책, 거버넌스의 남성 할당 - 시민들의 인식을 선도하는 정책 구상
<p>사회문제를 젠더갈등으로 왜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를 젠더갈등으로 프레임 하는 문제가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심화·과장됨 - 노동의 문제, 인식차이와 같은 청년현실의 문제가 젠더갈등으로 프레임화 된 것임 - 젠더갈등은 잘못 기입된 청구서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회의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함.

2) 2차 회의 결과

- 2차 회의는 1차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 정책의 방향을 토의하였으며, 해외 정책 사례로 독일의 남성과 소년을 위한 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함.
-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 기

회 제공, 여성을 범주로 하는 정책에서 젠더 정책으로 전환 필요성, 젠더 관점의 남성 참여 기회 확대 등이 논의되었음.

-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 인식 기회 제공)** 성차별인식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남성성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차별과 피해를 사례로 드러내고,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활동이 필요함.
 - 가부장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청년 남성 등이 겪는 차별, 남성성에 대한 경험 등을 드러내면서 젠더감수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청년 및 모든 세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가시화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여성 범주 정책에서 젠더 정책으로 전환)** 양성평등정책은 여성 범주 정책에서 젠더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개혁하는 젠더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가부장사회에서 남성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남성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면서도 청년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를 발굴하고, 청년 참여 조직과 연계하여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며, 여성운동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노동시장 구조에 따른 남성 문제를 발굴하고, 남성에게 불편하고 차별적인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함. 돌봄 등의 영역에서 남성들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어려움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이 남성에게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어야 함.
 -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득, 계층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청년세대 문제를 파악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주제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차이보다 공통점을 찾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
 - 성평등정책의 청년 참여는 성평등정책으로 독자 추진하는 것 보다 청년정책에 대한 성평등관점의 협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남성통합 정책에서 여성운동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남성 통합 정책이 성평등정책의 축소로 느끼지 않도록 하고, 여성운동의 고민과 가치를 공유하도록 함.
- **(젠더관점의 남성 참여 기회 확대)** 젠더관점의 남성 참여를 지향하면서 남성을 위한 참여 구조 마련, 기존 거버넌스 구조에 남성 참여 확대, 참여 주체 형성, 남성 참여를 위한 안전하고 실수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경기남성정책 모니터링단과 같이 직업군, 연령을 고려하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구조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위원회, 여성거버넌스에 남성을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청년 그룹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참여를 위해 남성 참여 주체를 형성해야 하며, 남성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함.
- 남성 참여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하고 규칙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표 2-5] 2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주요 방향	과제	세부과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 인식 기회 제공	남성성으로 인한 피해 드러내기	- 전통적 남성성을 벗어난 남성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굴: 다큐 및 동영상 공모전
	청년 남성 지향 성평등 가치 주목	- 청년 남성은 어느 세대보다 성평등 지향이 높은 세대, 성장과정에서 인식한 가부장 사회 서사화
	여전한 성 격차 드러내기	- 여전히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격차가 있는 부분 가시화(콘텐츠, 다큐멘터리 제작 등)
여성 범주 정책에서 젠더 정책으로 전환	가부장사회에서 남성 문제 발굴	-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남성이 겪는 부담, 스트레스 경감 정책 필요 - 남성에게 불편, 차별적인 환경 개선(탈의실 등)
	돌봄 등 남성의 동등한 참여 정책	- 미혼부 정책 - 남성 육아휴직 참여의 어려움 등 의견 수렴
	여성 위주의 정책에서 남성을 통합한 정책으로	- 여성, 남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발굴 - 여성정책에 남성이 참여하는 관점에서 나아가 남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접근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에 주목	- 소득, 계층 등에 따른 미래 불안, 사회문제 고려 - 생애별 어려움 세부적으로 파악(연령, 성별 등) - 남성의 다양성과 위기라는 관점의 고려 필요
	청년의 공감 주제 발굴	-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 분석 등을 통해 공통으로 의제 발굴(폭력, 학대, 군 희생자, 여성안전 등) - 남녀가 함께 하는 청년 정책 참여 모니터링 - 공통의 의제라도 남녀의 경험 반영 -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쉽지 않음
	청년 참여 조직 연계	- 청년 지원 사업, 공간 활동과 연계 의견 수렴
	여성운동과의 소통 필요	- 남성 통합 정책에 대한 필요성, 소통과 공론의 장 필요(키오프 미팅) - 남성 통합 정책이 성평등정책의 축소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 - 여성운동의 고민,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 마련

젠더관점의 남성 참여 기회 확대	남성 이해관계, 계층 고려	- 경기남성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직업군, 연령 고려,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역할
	젠더거버넌스의 남성 참여 확대	- 젠더거버넌스 구조에 남성 할당 - 남성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그룹과 연계한 활동
	남성 참여 주체 형성	- 남성 공동체, 커뮤니티 조성
	남성 참여를 위한 안전하고 실수친화적인 환경 조성	- 남성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 규칙 마련 - 안전한 환경에서 남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차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음.
	젠더관점의 남성 참여	- 남성의 참여가 성토타대가 되지 않도록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할 필요

자료: 회의결과를 연구진이 정리함.

3) 3차 회의 결과

- 3차 회의는 1, 2차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이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였음. 주요 내용은 젠더갈등에 대응하여 양성평등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 정책목표, 주요 정책 방향 등이었음.
- **(비전)**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정책의 비전 및 지향가치로 공정, 공감, 공존, 포용, 다양성,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삶의 질을 높이는 양성평등, 젠더 기반 삶의 질 향상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 **(목표)**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목표는 젠더갈등 완화와 젠더감수성 향상, 인권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성별화된 사회 구조 변화, 젠더관계 변화 등이 논의되었음.
- **(주요 방향)** 정책의 주요 방향은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 실천 확산, 남녀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발굴추진, 소년·남성을 통합하는 젠더정책 추진 또는 소년·남성 맞춤 정책, 성평등과 남성에 대한 지식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 실천 확산)** 젠더 및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고 양성평등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었음.

- 제안된 사업은 서사화를 통해 차별화된 사회 구조 인식을 돕기 위한 콘텐츠 공모전, 상호존중 및 공감을 위한 공론의 장, 문제의 원인보다 해결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양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 기존의 미디어교육 내 인권 및 성인지감수성 내용 수록, 소년·남성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돕기 위해 게임 및 IT 기반 성인지감수성 교육 개발을 위한 공모전 등 임.
- **(남녀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발굴추진: 불평등 문화관행 개선)** 성별화된 사회 변화를 위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이에 남녀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성차별적인 문화 및 관행 등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주요 방향으로 제안됨.
 - 제안사업은 성별화된 공간환경의 개선, 직장내 위계 및 불평등 문화 개선 등 청년의 관심 정책 추진, 청년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돌봄 역량 지원, 성인지관점의 청년정책 참여를 통한 개선 등임.
- **(소년·남성을 통합하는 젠더정책 추진)** 양성평등정책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워킹그룹에서 남성의 참여와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음.
 - 제안된 사업으로 성평등정책의 남성 참여 조직화 및 남성 할당, 스포츠 및 게임 등을 활용한 소년 및 남성의 성인지활동 참여 지원, 남성 참여를 위한 지식 공유, 미혼부 등 젠더 관점의 남성정책, 정치영역의 남성 훈련 등이 논의됨.
- **(성평등과 남성에 대한 지식 구축)** 성평등정책의 남성 통합을 위해서 젠더화된 사회에서 남성의 삶과 경험, 차별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연구도 필요함.
 - 성별화된 사회에서 남성의 삶의 경험을 생애별로 연구하고 특히 전통적 남성성에 따라 차별피해를 경험한 남성 등을 연구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2-6] 3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젠더갈등 대응 양성평등정책 방향(안)

구분	주요 내용	
비전 및 지향가치	공정, 공감, 공존, 포용, 다양성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삶의 질을 높이는 양성평등, 젠더기반 삶의 질 향상	
목표	젠더갈등 감소, 인권, 성인지감수성 향상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여성정책(범위, 대상)에서 성별화된 사회구조 전환 정책으로 젠더 관계 변화	
주요방향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서사화를 통해 차별화된 사회구조 인식 : 콘텐츠 공모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존중, 공감을 위한 소통 : 소통, 공론의 장 마련 - 양성평등 인식 확산 : 양성평등 실천사례 발굴, 확산(홍보) : 미디어교육 활용/ 기존 미디어교육 내 인권, 성인지감수성 내용 수록 - 소년·남성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활동 : 게임, 미디어 등을 활용한 인권,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개발 (청년 IT개발자 참여, 공모전)
남녀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발굴추진: 불평등 문화관행 개선(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화된 공간 개선 : 요가, 여가 장소에서의 남성 공간 확보 - 청년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직장 내 위계문화 개선(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안전/돌봄 역량 강화(스스로 돌보는 역량 등) - 현황 및 개선 점검 : 청년, 성인지관점의 정책모니터링
소년·남성을 통합하는 젠더정책 추진 또는 소년·남성 맞춤 정책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정책의 남성 참여 조직화 : 남성 정책포럼(참여단) 운영(직업군 등 고려) : 젠더거버넌스 남성 할당 - 남성 참여 지원(성평등 남성성 정립/문화조성) : 소모임, 공동체 활동 등 : 소년·남성의 성인지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활동 확대(스포츠험일, 게임 등 활용) - 남성참여를 위한 지식공유 : 성찰적 남성성 교육 - 남성 지원 정책 발굴·확대(젠더관점) : 미혼부, 육아휴직 : 소수자 남성, 폭력피해 남성 - 정치영역의 남성 훈련
성평등과 남성에 대한 지식 구축(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적 관점의 남성 연구: 청소년기, 중소기업, 비정규직, 30대 구직 남성, 육아휴직 남성, 미혼부, 왜소남성, 폭력피해 남성 등

자료: 회의결과를 연구진이 정리함.

4) 4차 회의 결과

- 4차 회의는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토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자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음.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제안된 과제는 11개의 과제임.

- 정책 분야별로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AI(Appreciative Inquiry)의 활용」, 「인권과 연계한 젠더 이슈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성평등 아동, 영유아 놀이문화 확산 사업」, 「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청(소)년 커뮤니티 발굴 프로젝트」, 「우리 엄마 연금 찾아드리기 프로젝트」,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음.
 - 제안사업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론, 콘텐츠 발굴, 유아, 청(소)년, 청년 대상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남녀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발굴추진에서는 「뛰하는 사람들」,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협력 사업」,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 사업」이 제안되었음.
 - 「뛰하는 사람들」은 성역할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며, 정책 모니터링, 청년 정책의 양성평등관점 반영 등을 제안했음.
- 소년·남성 통합 정책으로는 「남성(성) 이해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음.
 - 남성성 이해 프로젝트는 남녀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 남성을 배려하고 남성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사업에 관하여 제안했음.
-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위한 성역할규범 변화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사례로 제안하였음.
 - 성평등을 위해 남녀 모두의 역할을 강조한 사례로 대응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례임.
- 각 사업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의 <표 2-7>과 같음.

[표 2-7] 4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젠더갈등 대응 정책제안 발표

구분	제안 사업	주요 내용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AI(Appreciative Inquiry)의 활용	긍정 주제 선정을 통해 양성평등 미래에 대한 상상과 이를 수 있는 방식에 관한 대화 촉진
	2) 인권과 연계한 젠더 이슈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성평등 이슈를 인권 및 다양성 이슈로 접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홍보
	3) 성평등 아동, 영유아 놀이문화 확산 사업	도시군 영유아 놀이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성평등 모니터링 및 보육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추진

	4) 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청(소)년 커뮤니티 발굴 프로젝트	젠더렌즈를 통한 남성 서사 발굴 및 커뮤니티 활동 발굴 - 남성 청소년, 청년 친화적인 접근
	5) <우리 엄마 연금 찾아드리기> 프로젝트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접근을 통해 젠더화된 격차 인식 -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가제)' 교육과정 개설
	6)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인식변화, 평등권리 인식, 성평등 가치 형성을 통한 포용적인 환경 조성
남녀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발굴추진	7) 뭐하는 사람들	성역할규범에서 벗어나 자기 돌봄과 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구축
	8)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협력 사업	청년 참여기구 활동에 양성평등관점 적용 - 교육 이수, 지표에 양성평등관점 추가
	9)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 단 사업	생활 속 안전을 주제로 성불평등 요소를 찾고 대안적인 정책 개선안 발굴
소년·남성 통합 정책	10) 남성(성) 이해 프로젝트	남성 소수자 배려, 여성특화 정책의 남성 참여, 여성 영역의 남성 진출 배려, 남성 마음 이해 프로젝트 추진: 다큐 제작 지원
추진구조	11) 성평등과 남성 : 성평등을 위한 성역할규범 변화의 개념적 프레임 워크(사례)	ICRW 보고서 「GENDER EQUITY AND MALE ENGAGEMENT : IT ONLY WORKS WHEN EVERYONE PLAYS」 (2018) 소개

자료: 회의결과 및 제안서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함.

Glinski, A., Schwenke, C., O'Brien-Milne, L., & Farley, K. (2018).

5) 5차 회의 결과

- 5차 회의는 4차 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제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들었음. 4차 회의는 서면회의로 실시하였고 5차 회의의 주요 결과는 <표2-8>과 같음.
- 제안된 사업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향후 양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목표 제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평등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기회와 활동 지원, 성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남성 참여 및 남성성 이해, 참여자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표 2-8] 5차 워킹그룹 주요 결과: 젠더갈등 대응 정책제안 발표

제안 사업	전문가 주요 의견
1) 양성평등 확장을 위한 AI(Appreciative Inquiry)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역량강화, 구체적인 스토리와 내러티브 발굴에 유용함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목표, 주제어 설정 필요 -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에 ‘젠더갈등’ 보다 바라는 ‘양성평등한 사회’ 가 상세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인권과 연계한 젠더 이슈 발굴 및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뉴스나 에세이,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동화책,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틀 수 있는 숏폼 영상 등 - 웹툰, 일러스트, 문학작품,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분야 - 혐오나 차별이 해결된 모습에 대해 청소년과 청년의 상상을 자극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담당자의 인식전환과 적절한 언어의 활용 중요 - 수상작의 확산을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 - 청소년이 성평등과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
3) 성평등 아동, 영유아 놀이문화 확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영유아 교재·교구 공모전 - 의복과 색상 등의 다양성 확보 필요
4) 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청(소)년 커뮤니티 발굴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이해, 남성 서사 발굴, 커뮤니티 지원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 - 남성 청소년 참여 확대 필요, 단계적으로 성별 구분 없이 참여
5) <우리 엄마 연금 찾아드리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문제와 비슷한 주제를 통해 세대/젠더의 이해 - 청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경제문제로 접근할 수 있음. - 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젠더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임.
6)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교육과 함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고려 - 2030 문화를 고려한 이벤트도 필요
7) 뛰하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양한 공간 구성, 긍정효과 예상 - 문제 중심이 아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 청년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퀘스트를 통한 미션을 수행하며 리추얼을 함께 나누거나 학습을 함께 하는 커뮤니티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음. -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에 유용한 사업임. 기존 디스코드, 베이크 등의 플랫폼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간지원, 활동비, 모임비, 멘토링 서비스 제공 및 우수모임 시상 등으로 활성화 고려
8)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참여 청년의 선정 방안, 활동 범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9)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 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사업임. 각 분야별 지표를 개발해 일상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10) 남성(성) 이해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문제(육아휴직 사용 어려운 아버지들)를 경험하는 남성 자조모임 결성 운영 - 남성이 다른 집단의 남성을, 여성이 다양한 남성집단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11) 성평등과 남성 : 성평등을 위한 성역할규범 변화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인 목표를 성평등과 긍정적 사회발전에 두고 성역할고정관념 타파, 남성참여 방안을 고민해야 함.

자료: 회의결과 및 제안서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함.

6) 6차 회의 결과

- 6차 회의는 연구결과 제안된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발굴 방향과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의 수정 및 추가 자문의견을 들었음.
 - 주요 의견은 대응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의견, 제안과제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의견, 제안사업 추진 시 고려할 점, 제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의 명시, 용어 사용의 통일 또는 수정 의견, 기타 사업 제안 등이었음. 연구진은 제안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음.
-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들은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고 정책과제 발굴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그리고 젠더갈등 관련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참여자들 스스로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던 점을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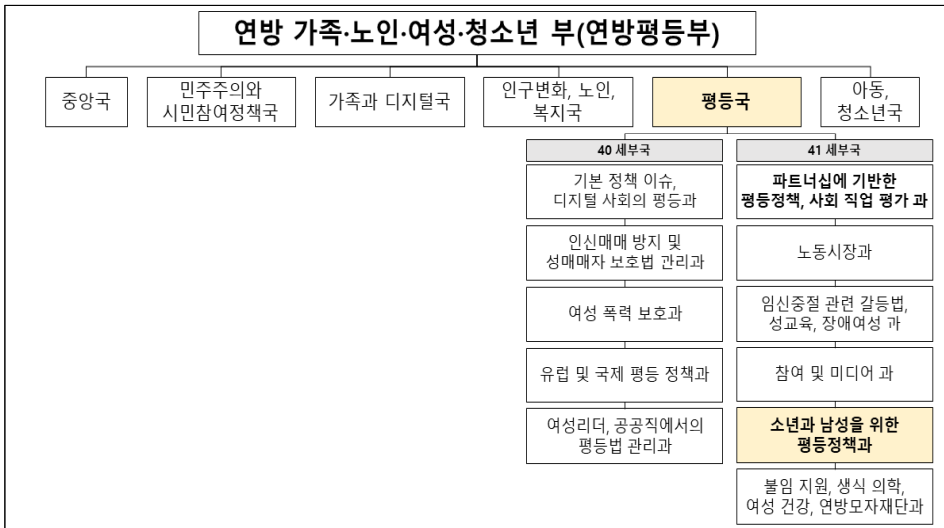
2. 해외 사례 검토

가. 독일의 평등정책³⁾

1) 배경 및 추진전략

- 독일은 성평등을 차별과 폭력이 없는 상태이자 사회정의의 문제로 전제하고, 더 나은 평등정책을 위해서 소년과 남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여성정책 패러다임에서 평등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며, 2010년대부터 남녀 기회공정 유지 정책을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음.
- 소년과 남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산하에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과” 를 두고 있으며, 남성을 위한 소년 및 남성 평등정책과는 독자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기보다는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원, 운영함.

[그림 2-1]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내 평등국의 조직도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ministerium/ministerin-hausleitung/organigramm> (최종검색일: 2023년 2월 13일).

주: 연방부처의 하부조직으로 국(Abteilung) - 세부국(Unterabteilung) - 과(Referat)가 존재함. 국과 과는 업무 성격 및 주제에 따라 각각의 명칭이 있지만 세부국은 별도의 명칭 없이 번호로 구분됨.

3) 본 사례는 임혜경, 백소운(2023). 「독일의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 사례 및 경기도 시사점」의 일부 내용과 독일연방평등국의 정책보고서를 발췌하여 구성하였음.

- 평등정책은 소년과 남성의 역할을 변화의 주체, 평등과 여성해방의 지지자 및 동반자, 다양성과 사회정의의 위한 연대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음.
- 연방평등부는 남성들이 처한 현실과 희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 판단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참여, 두 개의 축(목표)을 설정하고 이 축들을 중심으로 소년과 남성을 위한 4개의 전략을 수립함. 각각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4×4 프레임워크 모델로 정해 공식화함.

[그림 2-2] 파트너십에 기반한 평등정책 전략과 목표

균등한 기회	
다양성	자유(자율성)
<p>개인 고유의 성격, 재능, 흥미를 확장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남성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소년과 남성의 취약성 인정 • 소년과 남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더 많은 지원 • 소년과 남성 지원 기관의 사회심리학적 역량 강화 	<p>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혜택에 대한 잘못된 우대는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정관념에 방해받지 않는 진로선택 • 법률 개선으로 선택의 자유 창출 • 교육 부분의 성별 역량 향상 • 남성 해방을 위한 지원 요구 강화
공정한 참여	
지속가능성	정당성
<p>세심한 남성성과 아버지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과 남성을 위한 지원 • 연구를 바탕으로 한 남성 건강의 중요성 강조 • 돌봄에 대한 남성의 기여 가시화 • 디지털화를 활용한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p>자원은 성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성애와 협력에 대한 남성의 인식 확장 • 남성의 가정에서의 무급 노동에 대한 책임 증가 • 기업 내 남성과 아버지를 위한 제도 확장 • 별거/이혼 중/후에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자녀 권리 보장

출처: BMFSFJ, 2020; 92-99의 내용을 요약, 번역함.

2) 주요 사업

- 연방평등부는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정책, 평등한 진로 및 학업 선택을 위한 성평등정책,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소년의 날 - 소년의 미래 등을 추진함.
- (소녀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정책) 소년과 남성이 기존의 역할 모델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진로와 인생 계획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 남성을 위한 연방포럼과의 협력, 남성 맞춤형 상담과 지원, 연구 프로젝트 ‘소년과 교육’, 고정관념 없는 진로 및 학업 선택, 시범프로그램 ‘횡진입 - 어린이집의 남과 여’ 등이 추진됨.
- **(평등한 진로 및 학업 선택을 위한 성평등정책)** 소년과 남성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정책임.
 - 젠더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료 출판 및 진로 선택 과정 관계자들의 웹 사이트 활용 지원, 청소년기 유아교육 분야 직업역할 경험 교육 ‘어린이집에 더 많은 남자들’, 간호직 남성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정치, 비즈니스 및 연구 분야의 협력과 관련 교육을 주도하며 300개 이상의 조직들이 참여함.
-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남성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남성이 평등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지원함.
 - ‘남성 상담 네트워크’ 를 통해 남성의 상담 접근성을 완화하며, 남성의 새로운 도전 지원, 남성 전문 상담 인력 양성, 전국남성폭력보호전문조정센터 운영, 남성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영웅들(HEROES)’ 을 지원,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 형태의 온라인 매거진 등을 추진함.
- **(소년의 날-소년의 미래)** 2011년부터 매년 4월 ‘소녀의 날(Girl’s Day)’ 과 함께 전국 ‘소년의 날(Boy’s Day)’ 이 개최됨. 이 기간 동안 5~10학년 남학생들은 성평등한 직업 및 인생 계획을 위한 학교 및 과외 활동을 활용할 수 있음.
 - 소년의 날을 통해 남학생들이 진로 선택 범위를 사회 및 교육 부문, 보건 부문 또는 서비스 부문과 같은 여성 위주인 직업으로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함. 소년의 날은 시대에 뒤떨어진 역할 모델을 극복하고 소년 개개인의 관심과 강점에 기반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음.

[표 2-9] 독일의 소년·남성을 위한 평등정책

구분		주요 내용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정책	남성을 위한 연방 포럼과의 협력	연방 남성 포럼은 성별의 영향을 받는 삶의 계획, 배려하는 남성 성과 남성 자기 관리, 폭력 피해 및 가해 남성, 남성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평등 정책에 소년, 남성 및 아버지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함.
	남성 맞춤형 상담과 지원	독일 카톨릭 연방 연합회와 청년·남성을 위한 실무그룹협회 작센의 프로젝트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소년, 남성, 아버지 대상 연방 차원의 상담 지원, 폭력 피해 남성의 피난처 구축
	연구 프로젝트 "소년과 교육"	교육 과정에서 남성의 특정 이미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연구
	고정관념 없는 진로 및 학업 선택	"이니셔티브 편견 없이"를 통해 성평등한 직업 세계를 안내, 확산하기 위해 노력.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걸스데이나 보이스데이가 시작됨.
	시범프로그램 "횡진입 - 어린이집의 남과 여"	유아교육 분야 종사 희망 남성 지원: 경력 인정 및 교육비 지원
평등한 진로 및 학업선택을 위한 성평등정책	젠더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다	"이니셔티브 편견 없이"의 협력 기업의 관련 자료 출판 및 진로 선택 과정 관계자들의 웹 사이트 활용 지원
	"어린이집에 더 많은 남자들"	청소년기 유아교육 분야의 직업·역할 경험을 통해 남성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린이집에 더 많은 남자들" 프로젝트와 "횡진입 - 어린이집의 남과 여"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남성이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간호직 남성 확대	간호직 근로조건 개선과 직무교육 강화를 위한 '돌봄 긴급 조치'를 통해 새로운 훈련 과정을 도입하고 간호 훈련생의 수 증대를 목표로함. 특히 관련 직업 남성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젊은 남성에게 집중 홍보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평등에서의 남성 지원 - 네트워킹, 상담, 접촉 및 지원“	다양한 삶, 위기 상황, 건강, 가족문제, 폭력과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상담을 통해 남성을 지원하고 ‘남성 상담 네트워크’ 를 통해 남성의 상담 접근성 완화
	남성의 새로운 도전	기존 성별고정관념으로 가정과 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적 갈등과 새로운 삶의 모델과 구식 틀, 관련된 수용 문제로 야기되는 가족, 직장 및 개인 발전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남성 및 다양한 삶의 상황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인력양성: 남성 전문 상담의 다양화“	인력양성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남성 전문가 양성: 남성 중심의 상담에 특화된 교육 서비스 개발 및 상담 서비스를 확장을 위한 협력 파트너 모집
	전국남성폭력보호전문조정센터(BFKM)	전국남성폭력보호전문조정센터(BFKM)를 통해 폭력의 영향을 받는 남성의 문제에 대해 정치인과 (전문) 대중의 관심 유도하며 피해 남성 상담 시스템 및 필요 인력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홍보
	프로젝트 “영웅들(HEROES) - 명예라는 이름의 억압에 반대“	명예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환경에서 사회화된 남성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의 시험장 - 청소년을 위한 젠더 매거진	웹사이트 형태의 온라인 매거진에서 청소년들이 성별 문제, 평등, 정의, 참여 또는 다양성에 대해 개인 혹은 그룹으로 텍스트, 비디오, 노래 및 이미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 자신을 표현함. 콘텐츠 확산을 위해 소셜 미디어 채널을 잇달아 개설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성인지 교육 전문가 그룹이 구축됨.
소년의 날 - 소년의 미래	남학생의 제한된 직업 영역	성고정관념으로 남학생들에게 선택의 제약이 있던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또는 플로리스트와 같은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소년의 날 레이더를 통한 등록	소년의 날은 전국 조정사무소에서 준비되며 관련 정보는 당일 웹사이트(소년의 날 레이더)에서 찾을 수 있음. 웹사이트를 통해 행사 장소를 찾고 이벤트 등록 가능

자료: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jungen-und-maenner> 의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요약함.

나. 캐나다 원탁회의⁴⁾

1) 배경

-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공정한 기회가 필요함. 공정한 기회에 있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신뢰를 잃은 젠더 개념은 개인의 잠재력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함.
 - 여성, 소녀들은 단순히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에 더 적은 기회를 얻고, 성공에 있어 더 큰 장벽에 직면하게 됨.
- 캐나다 정부는 성평등을 발전시키고 포용적인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 정치 및 비즈니스 리더십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참여 장려, 빈곤 및 경제적 기회 부족 해결, 가족이 일과 돌봄 책임의 균형을 맞추도록 지원, 성별 기반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함.
- 여성 및 여성단체는 양성평등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더 많은 자금을 요청함. 정부는 2019년 예산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투자를 5년간 1억 6000만 달러라고 발표했고, 2023-24년까지 여성단체에 대한 투자를 연간 1억 달러로 끌어올리기로 약속함.
 - 이 자금은 여성단체와 여성에게 봉사하는 원주민 단체가 여성발전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젠더와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예: 정부 프로그램 및 정책의 성별 기반 분석(GBA+) 중요성에 대한 전국 포럼, 젊은 캐나다인과 양성평등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 더 많은 남성과 소년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평등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것 등).
- 원탁회의는 남성과 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캐나다 전역에서 이미 진행 중인 활동을 공유하고, 오래된 젠더 개념이 남성과 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밝혔음.
 - “진정한 남자”가 되고, 항상 생계를 유지하고, 약함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고, 단지 “그게 남자가 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도전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라는 비현실적인 사회 및 포레 압력 등.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엄격한 성별 고정관념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나 약물 남용, 경우에 따라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4) WAGE(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2019). 「Calling Men and Boys In」의 내용을 요약, 발췌함.

2) 주요 내용

-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함.
 - 남성과 소년들이 양성평등을 발전시키는 데 참여하기 위한 핵심 원칙
 - 다양한 그룹의 남성과 소년을 참여시키는 장벽과 성공적인 모델 사례
 - 이 분야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 전국에서 온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성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성과 소년들을 가장 잘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함.
 - 참가자는 양성평등에 대한 남성·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및 프로그램을 다루는 지역사회기반 조직의 대표자, 학계, 지역사회 지도자 및 장애인, LGBTQ2 사람들, 노인, 원주민, 인종별 커뮤니티, 학생, 청소년, 신앙 기반 조직, 민간 부문, 노동 부문 등임.
 - 원탁회의는 위니펙, 토론토 등 9개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그 외 학생, 캐나다 청년, 직장, 기업 참여와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하여 주제별 상담 진행
- 원탁회의를 통해 남성과 소년이 양성 평등을 발전시키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핵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불평등에 기여하는 행동을 인식하여 벗어나기** : 가부장제는 교육시스템, 직장, 소셜미디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존재하면서 남성성을 강화하므로 그것과 맞서야 함.
 - **책임과 치유를 통해 부정적인 규범, 태도, 행동에 도전하고 변화하기** : 성평등한 행동을 장려함. 긍정모델을 제시하고, 치유 및 회복접근을 통해 피해자 및 생존자의 경험에 귀 기울이며, 남성성에 따른 사회적 기대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
 - **네트워크 구축, 지식공유 및 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조직은 커뮤니티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결과에 집중하며, 정보공유, 공동작업, 모범 사례 등을 통해 프로세스를 가속화 함. 정부는 증거기반 자료 구축 및 연구,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함.
 - **책무와 자원 부족** :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및 접근성 증가가 필요함. 남성과 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자금은 새로운 출처에서 가져와야 함. 여성과 소녀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자원을 가져와서는 안 되며, 기존 여성운동을 인정해야 함.

[표 2-10] 소년과 남성 참여를 위한 주요 원칙: 캐나다 원탁회의

주요 원칙	주요 내용
불평등에 기여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벗어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에 뒤떨어지는 젠더 규범에 도전하는 것 - 가부장제 등은 남성성을 강화하는 규범과 고정관념을 만들고 평생동안 강화함, 교육시스템, 직장, 소셜미디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존재. 그것과 맞서야 함. - 모두에게 맞는 접근 방식은 없음에 동의.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남성을 만나야 함. 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적. 교육기 뿐 아니라 성인기 학습도 필요 - 남성은 사회 규범의 문지기, 기관의 의사 결정자, 가족의 아버지, 지역 사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역할이 중요 -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인식을 높이고 대화의 문을 여는 강력한 도구
책임과 치유를 통해 부정적인 규범, 태도 및 행동에 도전하고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행동을 장려하여 남성과 소년이 사회에 도전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활동을 해야 함. - 역할모델 제시: 지역사회 지도자, 유명인, 운동선수, 신앙 기반 지도자 또는 원주민 장로, 코치 및 교사 - 긍정모델로서 비즈니스 커뮤니티 변화 중요: 성평등과 관련된 진전을 이룬 기업. 명예 중시 - 치유 및 회복 접근도 중요: 피해자, 생존자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 건강한 남성성, 다양한 젠더문제, 남자가 된다는 것의 관점 등에 대해 사회적 기대 및 제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중요 - 학교, 남성이 자주 찾는 지역에 안전한 공간 만들기 - 청소년기 교육, 부모, 직장, 지도자, 폭력 가해자와 생존자 모두 포함한 성인프로그램 필요
네트워크 구축, 지식 공유 및 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은 커뮤니티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결과에 집중 - 정보 공유, 공동작업 및 모범사례 사용해 프로세스 가속화 - 정부는 연구 및 지식 창출 지원, 정보를 번역하고 공유 - 원탁회의가 네트워크 구축에 효과적 - 증거기반 정책을 위해 성별 분리 통계 필요 - 남성과 소년 참여는 더 큰 목표의 한 요소. 임금평등, 저렴한 주택, 소득 불평등, 빈곤, 임금격차 감소, 원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 보육 개선, 직장내 괴롭힘 종식, 적절한 의료 제공도 성불평등 해소의 주요한 요소 - 지속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노력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내의 의미있는 장기적 관계 구축
책무와 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및 접근성 증가 필요 - 남성과 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자금은 새로운 출처에서 가져와야 함. 여성과 소녀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자원을 가져와서는 안됨. 기존 여성운동을 인정 - 공공서비스 전반에 양성평등문화를 촉진하는 캐나다 정부의 리더십 발휘 촉구

자료: WAGE(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2019).

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남성참여 정책: GIZONduz⁵⁾

1) 배경

- GIZONduz는 Emakunde-Basque Institute for Women이 추진하는 바스크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음.
-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모든 행동에 남성의 완전한 참여” 선언을 계기로 평등을 촉구하는 남성 참여 필요성을 반영하여 추진되기 시작했고,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에서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은 남성, 소년의 참여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 고 선언한 것을 반영함.
- 주요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지하는 의식, 참여와 관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페미니즘, 인권, 다양성-포용 접근에 기반하고 있음.
- 전체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남자, 소년들 사이에서 윤리적 가치와 가정에서 돌보는 실천을 일상화하는 것
 - 개인 및 타인의 발전과 삶의 질을 촉진하고, 안전한 남성성과 그러한 환경에 따른 위협적인 행동, 폭력, 젠더기반 불평등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사업

가) 사업 목표

- GIZONduz의 사업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양성평등에 민감한 남성의 수를 늘린다.
 - 평등을 위한 훈련을 받고, 헌신하며,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남성의 수를 늘린다.
 - 집안일과 보살핌에 대한 남성의 책임 수준을 높인다.

나) 2021년 주요 사업

- 웹사이트 운영 : 인터뷰, 소셜 네트워크
- 교육 및 인식프로그램 :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과정, “GAZTEAKBERDINTASUNEAN

5) Emakunde-Basque Institute for Women. (2022). 15 YEARS OF GIZONDUZ: THE ROAD TRAVELLED 와 Emakunde-Basque Institute for Women. (2021). GIZONDUZ INITIATIVE 2021 REPORT에서 일부 발췌 정리함.

2.0” 프로젝트

- “GAZTEAKBERDINTASUNEAN 2.0” 프로젝트 : 다양한 시나리오와 특정문제에 직면하는 온라인 모험(비디오게임). 성차별, 동성애혐오, 폭력등과 관련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지 선택 가능.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단위 및 워크시트
- 정치영역의 남성 : 정치권 내 남성 대상 훈련, 성찰 프로그램. 평등지침 초안을 작성. 유럽지역회의의 모범 사례
- “GIZONOK ESAN ETA EGIN” 캠페인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성차별을 스스로 평가하고 가능한 광범위한 약속을 선택하도록 함. 평등한 노동에 대한 남성 참여 가시화
- 교육 및 인식 활동 참여 : 칠레, 바르셀로나의 원탁회의 등 참여
- 지침 및 협력사업

다) 향후 과제

- 평등을 위한 국가협약과 평등실행의 새로운 계획 준수, 특정 조치 외에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 정책, 그리고 2차 예방 영역에서 더 큰 개입을 위해서 교차적이고 다중적 측면의 접근 필요
- 평등과 관련한 오늘날 사회의 새로운 욕구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미니즘그룹, 남성평등그룹, 그리고 다른 조직과 기관과 함께 하는 파트너십의 수를 증가시키기
- 평등에 대해 자각하고 헌신하는 남성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지속하기 위하여, 전략분야의 새로운 그룹인 키맨과 함께 하기
- 평가와 리포팅, 개선이 가능하도록 변혁적인 접근을 취하도록 보장

Ⅲ

젠더갈등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과 의견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방법

- 집단면접조사(FGD)는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및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경험을 조사하고,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도출된 성인지갑수성 및 실천역량 강화, 공감과 소통, 남성의 정책 참여, 성평등 참여 그룹 형성을 위한 정책 요구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음.
- 조사 대상은 정책 참여 활동 및 성평등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였음.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세대들은 관련 정책에 대한 좀 더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전문가 워킹그룹의 논의를 반영해 문제보다는 해결에 집중하여 실행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하였음.
 - 특히 참여자 대부분이 경기도의 양성평등정책 및 청년사업의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대상자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 조사 참여자 그룹은 성평등에 관심있는 대학생 남녀, 페미니즘성평등 활동을 하는 남성, 경기도 청년정책 참여기구에 활동하는 남녀, 경기도 성평등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남녀, 직장내 성평등활동 경험이 있는 남녀 등이었음.
- 참여자 모집은 경기도 및 시군의 청년참여기구,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거버넌스, 본 재단의 경기도양성평등센터 지역성평등문화조성사업(젠더공감 나우),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등의 사업 담당자를 통해 참여자를 추천받았고, 그 외 남성페미니즘 활동가, 경기도내 소재 대학생을 모집했음.

[표 3-1] 집단면접조사 대상 및 참여 인원

대상집단	일시	참여인원
성평등에 관심있는 대학생 남녀	5. 12.(금) 17:30~19:30	6
페미니즘, 성평등활동을 하는 남성	5. 15.(월) 19:30~21:00	5
경기도 청년정책 참여기구에 활동하는 남녀	5. 17.(수) 19:30~21:00	6
경기도 성평등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남녀	5. 22.(월) 19:30~21:00	5
직장내 성평등활동 경험이 있는 남녀	5. 24.(수) 19:30~21:00	3

- 조사 내용은 젠더갈등 및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경험,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공감대 조성 방안, 성평등정책의 남성통합을 위한 과제, 성평등을 지지하는 다양한 참여 그룹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요구를 조사하였음.
- 조사 문항은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참여자에게 보내주었고, 당일에 참여하여 문항별로 질문하고 참여자들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조사 내용은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했음.

[표 3-2] 조사 내용

구분	질문문항
젠더갈등 및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경험	1. 귀하가 평소 생활하는 곳(가족, 학교, 직장)에서 젠더갈등 또는 성평등정책(여성가족부)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보신적인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2. 귀하가 남성/여성이기 때문에 가족, 학교, 직장, 사회에서 불이익, 불편,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또는 특권을 누린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공감대 조성	3. 귀하는 성역할고정관념 해소, 평등하게 소통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성인지감수성 교육 등)의 기회를 접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귀하는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공감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 공감의 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남성통합을 위한 과제	5. 귀하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주목해야 할 남성의 요구, 남성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평등을 지지하는 다양한 참여 그룹 형성	6. 귀하는 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그룹을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 타	7. 기타 젠더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나. 조사 참여자

- 면접조사 참여자는 모두 25명으로, 여성 10명, 남성 15명이었음. 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표 3- 3>과 같음.

[표 3-3] 조사 참여자

집단	참여자	성별	연령(만)	직업
성평등에 관심있는 대학생	1-A	여	21세	대학생
	1-B	남	21세	대학생
	1-C	여	19세	대학생
	1-D	여	22세	대학생
	1-E	남	18세	대학생
	1-F	여	21세	대학생
페미니즘, 성평등 활동을 하는 남성	2-A	남	29세	활동가
	2-B	남	39세	강사
	2-C	남	31세	강사
	2-D	남	27세	강사
	2-E	남	28세	강사
경기도 청년정책 참여기구에 활동하는 남녀	3-A	남	35세	상담사/활동가
	3-B	남	32세	디자이너
	3-C	여	34세	회사원
	3-D	남	39세	회사원
	3-E	여	26세	대학생
	3-F	남	28세	회사원
경기도 성평등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남녀	4-A	남	37세	회사원
	4-B	여	28세	회사원
	4-C	여	26세	회사원
	4-D	여	34세	활동가
	4-E	남	24세	대학생
직장내 성평등 활동 경험이 있는 남녀	5-A	남	33세	자영업
	5-B	여	35세	회사원
	5-C	여	29세	회사원

2. 조사 결과

가. 젠더갈등 및 차별 경험

1) 젠더갈등 상황

- 청년세대는 젠더갈등을 일상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상황부터 사회적인 갈등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인식하고 있음.
 - 페미니즘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 상황 뿐 아니라 젠더 인식 격차에 따라 가족, 친구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 또는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차별 등을 모두 젠더갈등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음.
- **(가족내 갈등)** 가족 내에서 경험한 젠더 갈등은 조부모 돌봄과 관련해 발생한 부모세대 형제자매간의 갈등, 부부간의 의견 차이 또는 소통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 세대와의 젠더 인식 격차 등임.
 - 조사 참여자들은 가족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성역할고정관념과 가부장적인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고, 부모 세대의 성역할고정관념으로 겪는 대화의 불편함과 충돌 등도 젠더갈등으로 인식함.
- **(친구, 지인과의 관계)** 젠더갈등 관련 대화는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며 본격적인 대화는 피하는 편이지만, 가까운 친구들과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들도 있었음. 주요 이슈는 양성평등정책이 여성인권에만 주목하고 여성가족부 명칭에 ‘여성’이 포함된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음.
 - 주요 내용은 페미니즘이 여성인권 운동에서 이퀄리즘 지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거나, 성평등 측면에서 일을 하는데 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쓰는가에 관한 것임.
- 한편,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남성 청년들은 여성가족부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문제이고, 페미니즘 관련 학문이 다른 학문에 비해 전문성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대학 생활)** 대학교에서는 인권 및 관련 수업에서 젠더갈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거나, 총여학생회 폐지를 둘러싼 학내 갈등에 관한 경험이 있음.
 - 수업시간 중에 젠더 관련 토론은 유익한 경험이었고, 토론에서 교수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였음.

- **(직장)** 직장에서는 조심스러워서 젠더갈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출산 및 육아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성별, 세대에 관계없이 관심이 높다고 인식했음.
- 젠더를 주제로 하는 대화는 어렵지만, 출산, 육아와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 편이며, 외국계 기업인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성평등 제도를 구비하고 여성인권, 성차별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사례도 있었음.
- **(사회)** 사회적으로 젠더갈등에 주목하는 것이 좀 더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유튜브, 게임 방송 등의 여성혐오적인 문화가 젠더갈등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였음. 한편,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참여자도 일부 있었음.
- 젠더갈등 관련 청년들의 경험은 <표 3-4>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4] 젠더갈등 경험 및 상황

구분	내용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의 성별 고정관념이 불편해 - 부모와 대화 (1-f) - 아내와의 소통, 이해 어려움(남중고, 이과/ 아내 여중고대. 페미니즘 관심)(3-d) - 아버지와 딸들이 성장 이후 젠더갈등에 대해 이야기(3-e): 외국문화 접하고 변화 - 아버지와 딸들과의 충돌/ 성별보다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갈등(4-c) - 부모들 간에 의견이 다른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직장생활 해보면 안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4-e) - 조모 돌봄 관련 부모세대 갈등. 딸이 하고 있는데 장남이 해야 한다고 주장(1-a)
친구, 지인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투운동, 페미니즘 부상시 여성인권 운동인데 이퀄리즘 지향해야 하는거 아닌가(1-c) - 성평등 측면에서 일을 하는데 왜 여성가족부인가(1-b) - 셋다운제, 여가부 예산에 대한 오해. 사실관계 정리하는 대화(2-a)/ 오히려 예산 확대 주장 - 학교내에서 인터넷 기반 주장들 무차별 퍼나름. 카더라 이야기(2-d)/ 젠더이슈에 있어 전문성을 부정 - 한부모 당사자로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민감(4-d) - 대학친구들과 이야기 하면 분위기 싸해짐(2-b) - 마초적인 동창들과 이야기, 여러번 반복하다보면 주제를 피하게 됨(2-c) - 페미니즘 공부한 이후 가족, 친구와 절연(2-e)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인권 교육 수업에서 토의. 교수 등 중재자의 역할 중요(3-e) - 대학내 총여학생회 폐지 관련 갈등(4-e)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관심이 많았으나, 직장에서 조심스러워서 이야기 하지 않음(4-b)/ 다국적기업에 다님, 여성의 날 행사, 성차별 모니터링 등 민감하게 대응 - 여성단체 활동하면서 자주 이야기 함(4-d) - 사내 문화가 개방적이지만 젠더 갈등 관련 대화는 자유롭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주제. 출산, 육아 등에 대해서는 관심, 사내에서도 활성화 하는 분위기(5-c)/ 기혼남성의 경우 출산 육아 2030, 40,50대까지 관심

언론과 정치권	- 갈등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더 주목(2-a)
인터넷	- 유튜브, 게임 방송에서 여성혐오적인 문화(2-b)
	-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경험 없음(3-f)

- 청년들은 인터넷 및 정치권의 이슈 뿐 아니라 가족, 일상, 학교, 직장 등에서 젠더 인식 격차에 따라 나타나는 의견 차이와 소통의 어려움을 젠더갈등으로 인식하였음.
 -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고정관념과 젠더인식 격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함.
- 젠더갈등 이슈를 다루는 대화는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소통 및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반면에 관련 수업이나 토론은 유익하게 인식하고 있어 공론의 장은 필요함.

2) 차별 경험

- 청년들은 여자/남자로서 경험한 차별 또는 특권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음. 가족, 학교, 일상, 아르바이트, 직장, 청년활동 등에서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거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여성을 특정 하는 정책은 차별이라고 인식함.
- **(가족에서의 아들선호, 성역할고정관념)** 가족에서 경험한 차별은 가부장문화와 아들선호, 딸에 대한 통제, 남자다움 강요 등으로 주로 부모세대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식함.
 - 아들 및 장남선호는 재산분배 및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이 되고, 딸에 대한 통제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선택 기회를 제한하며, 남자다움 강요는 부담으로 작용함.
- **(학교에서 여성성/남성성 강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교복, 남성탈의실이 없는 점, 개인의 취향이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 체벌 및 조치에서 남녀를 구분했던 것 등을 차별로 인식하였음.
 - 여성성을 강조하는 교복, 남학생에 대한 폭력적인 대우, 여성적 취향이라고 여겨지는 친구에 대한 조롱 등 여성성/남성성을 강화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경험함.
 - 남학생들은 여학생이 생리공결을 여학생이 악용한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권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음. 남학생들은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차별로 크게 인식하지는 않았음.
- **(아르바이트에서 성별 분리)**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청년들이 경험한 차별은 서비스직은 여성, 힘을 써야 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남성에게 배정하는 관행, 여성이 택배와 같이

일을 할 때 무조건 꺾어주는 경험이었음.

- 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별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문화가 목인되고 있다고 인식함.
- **(직장내 지위, 업무 차별)** 청년들은 상당수가 직장생활을 경험하여 직장내에서 성차별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였음. 직장내 지위와 대우에 있어 남성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과 업무에 있어서의 성별 분리 등을 주요한 차별로 인식했음.
 - 대부분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라 업무가 분리되어 남성들은 힘을 쓰거나 장거리 출장, 야근 등을 배정하고, 여성들에게는 접대와 같은 일을 공공연하게 담당하도록 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인식함. 청년 여성들은 면접에서의 성차별, 직장내 지위에서의 차별,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해 고민이 많았음. 일부 직장상사들은 여성에게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지 말라는 발언도 하는 등 직장생활에서 성차별 관행과 문화가 여전했음.
- **(일상에서의 남성성/여성성 강화)** 청년들은 일상에서 남성성/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 남성은 세심한 성격에 대해 남자답지 못하다는 편견을 듣게 되며, 마른 체형의 남자는 신체와 외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함. 여성들은 친절함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음.
- **(성평등 활동은 특권이자 소외)** 남성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성장과정에서 자신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렸고, 페미니스트 활동에 대해서도 여성보다 인정을 받는 편이라고 인식함. 그렇지만 페미니즘 활동으로 인한 소외를 경험하기도 했음.
 - 성인지교육 활동을 하는 남성활동가는 남성청소년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여 강사로서 유리한 경험을 하였다고 인식했지만, 관련 일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진도 될 수 있다고 우려함. 그리고 성평등 관련 활동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직업의 접근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상황도 있음.
 - 한 청년 여성은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로부터 페미니스트인가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고 함.
- **(공간 및 환경의 성차별 관행)** 화장실 구조와 ‘여성주차장’ 이 여성만을 위한다는 불만이 있고, 여성주차장을 유아동반주차장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 차별 및 특권에 관한 청년들의 경험은 <표 3-5>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5] 차별 경험

구분	내용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문화, 제사 준비 여성, 절은 하지 못함(1-a) - 아들 선호, 외조부 장례 이후 아들이라서 여학연수(1-b)? 개의치 마라 하지만 사촌들에게 미안 - 재산상속에 따른 부의 격차, 장남 선호, 늦둥이 사촌 남아 사랑 독차지(1-d) - 아들 선호 진로 선택 차별(1-e) - 부모님이 아들에게 자동차 선물(4-b) - 여동생에게 내 밥을 차려주라는 부모(2-b), 밥상 차리기(4-d) - 여동생 핸드폰 위치 추적 어플, 안전 불안(1-e) - 여자 사촌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1-e) - 맏이고 남자니까 씩씩해야 한다(2-b)
중,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여학생 바지 제한(1-d) - 교복 디자인 불편(1-c) - 탈의실 공간 여학생에게만 (1-a) - 여학생 생리공결 악용(1-e)/ 이해할 수는 있으나 부럽다 - 중학교때 학생 체벌 시 남녀 다르게, 수업시간 중에 남학생은 화장실 안보내줌 (1-f) - 메이크업계 진로 선택 남학생, 선생님이 다른 진로 권유(1-a) - 핑크색 좋아함, 친구들이 남자가 핑크색 좋아한다면 물건 뺏어감(1-e)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 알바 시 여자라고 폄하(1-a) - 프랜차이즈 서비시직 여성만 선호(1-a)/ 남녀 무관이라고 하지만 성별이 정해져 있음 - 축제 알바시 남녀 역할 구분(1-b) - 에브리타임 어플에서 남녀 고정관념(1-f)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니까 공무원 공부해라, 면접시 페미니스트 드러내지 마라(3-e) - 직장내에서 남성 우위가 있음. 중소기업 책임 업무 맡지만 대우가 낮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남성 우위. 출산 이후 아웃라이어 2년동안 경력 중단(3-c) - 장거리 출장, 야근은 남성들에게 좀 더 자주(3-d) - 승무원 신체 기준 등 차별이 있었음(4-a) - 접대 업무는 여성 직원 담당(4-a)/ 셀프존으로 개선 - 육체적인 일은 여자 인턴들이 거의 안함. 창고 정리 등은 남성 몫(4-e) -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것을 단순히 남녀 차별로 접근하지 말아야 함.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보내는 것이 경영상 쉽지 않은 문제. 정책적 보완이 필요 (5-a) - 면접 볼 때 비혼 계획을 먼저 밝히는 여성, 전 면접에서 여성은 결혼 안할 사람을 뽑겠다고 해서(5-b) - 전 직장에서 여성은 무기계약직만 가능, 남녀 지위 다른 회사 여전히 있음(5-c)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심한 성격에 대해 하나하나 신경쓰나며 남자답지 못하다는 핀잔(1-f) - 탈의실 없는 것 등 불편함이 있지만 그냥 넘어감. 항상 여성들 불편함 위주로 이야기 되었던 것 같음. 남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음(1-b) - 남성으로 발언권을 얻기 쉬웠음(2-d) - 성인지교육에 남성 강사로서 선호/특권(2-d) - 성인지교육시 남자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이 편하게 생각하고 공감해 줌(2-c) - 남자가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인정/특권이라 생각(2-e) - 남자가 페미니즘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 지인들에게 소외(2-d) - 남성으로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고 대우받았던 것 같음(2-d) - 남자로서 마른 체형, 주변에서 외모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았음. 신체와 외모에 대한 차별과 혐오(2-a) - 성인지교육, 상담시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 취업 어려움(3-a) - 성폭력 범죄에 있어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언급하는 사례(3-a) - 성희롱 현장 목격시 제지를 하면 남자 친구냐는 항의(3-a) - 무거운 물건 들고 하는 것은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특성(3-f) - 여성에게 요구되는 친절함(4-c)
청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가 5-10살 정도 많은 분들이 페미니스트인가 묻는 질문(3-e)/ 여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디지털성범죄 불안(1-f) - 남자 화장실 개방적 구조(1-f) - 여성주차장이 있는 것이 차별적(5-a) - 임신, 육아 하면서 여성주차장 많이 도움됨. 여성주차장을 유아동반주차장 같이 이름 변경해야(5-b)

- 청년들은 가족, 학교, 직장 등에서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개인의 공정한 기회와 잠재력 실현에 성차별 관행이 기회를 제한하는 경험을 수시로 하고 있음. 한편, 사회, 제도적으로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공간 구성이 여성만을 특징하는 것에 따른 불만 등이 성평등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작용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음.
- 임신부, 돌봄 가족, 노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구조 및 운영 등에 있어 양성평등 관점에서 기존의 운영방식 및 공간구성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성인지교육과 소통방안

1) 성인지감수성 교육 기회

- 청년들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평등한 소통 및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성인지교육과 성평등활동이 유익하고 의미 있다고 인식함.
- **(성인지교육 기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유용)** 전체 조사 참여자의 절반 정도는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없었고, 학교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은 형식적이었다고 기억함.
 - 일부 참가자는 대안학교 필수과목이던 성인지교육과 대학내 필수교양인 인권 수업이 유용했다고 인식했고, 학교에서 참여한 양성평등 관련 백일장 등이 성평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인식함.
 - 학교 성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이 성평등감수성 교육과 결합할 필요가 있고, 단계별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도 제안하였음.
- **(일상적인 공간 및 활동에서의 접근 기회)** 한 참가자는 도서관에 페미니즘 도서 코너를 만들고 관련 강좌를 했던 것이 성인지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다른 청년은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성인지기사 작성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특히 성평등 활동을 하는 남성 청년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통해 남성성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면서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인지교육 개발을 제안함.
- **(직장내 성인지감수성 교육 유용)** 청년들은 직장에서 성폭력예방교육에 성평등교육을 포함하거나 의무교육인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들었던 것이 성차별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재단에서 실시하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교육이 성차별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함.
- **(다양한 성평등활동 경험 유익)** 그 외 경기도양성평등센터의 젠더공감 나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경기여성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성인지교육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것으로 인식하고, 남녀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성인지교육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함.
- 성인지교육의 기회와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은 <표 3-6>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6] 성인지교육 경험

구분	내용
성인지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 관련 교육 경험 없음(3-d) - 들어본적 없음(1-b) - 기회 없음(3-f) - 학교 다니면서 들어보지 못함(5-a)/ 성교육은 들었음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 초중고 성인지교육 유익. 경계존중 교육(1-c) - 양성평등 백일장 참여(1-a) - 양성평등 글짓기 했으나 도움은 안됨(1-d) - 폭력예방교육시 외부 강사 사례 위주 강의 유익(1-a) - 성교육 형식적(1-e) - 학교 성교육(1-e)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교양으로 인권교육: 수업하기 전 차별적 발언, 상대방 무시 발언 토론 참여 할 수 없고 F 처리 안내. 수시로 이야기 해주심(3-e) - 학생회 임원활동 성폭력예방교육 기억이 잘 나지 않음(4-c) - 성폭력예방교육 형식적(4-e)
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전력 교육시 성인지, 성폭력 관련 교육 실시, 영상 보고 이야기 하는 게 좋았음(1-f)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에 페미니즘 도서 강의, 페미니즘 입문에 도움(2-d) - 블로그 기자단: 성인지 기사 작성(3-e) -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들으면서 남성에 대해 알게 되었음.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2-e)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이카 해외봉사단 성인지교육, 관심이 없어서 잘 듣지 않았음(2-b) - 대기업 입사하면서 필수 성인지교육 6시간 들었음 평소 말, 태도에서 성차별을 이해할 수 있었음(3-c)/ 성희롱 교육은 이수 - 성폭력예방교육을 하면서 성평등교육을 같이 한 것이 좋았음(4-b)/ 그 외 성인지교육 경험 없음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없는 사업장 만들기에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음.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성별 뿐 아니라 나이, 학력, 국적 등 다름에 대한 이해(4-a)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 등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5-a) - 교육 계기로 출산이후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안의 성역할고정관념 발견(5-b) - 경기도 성인지감수성 교육 경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음 만족도 높았음(5-c)
젠더공감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사례 중심 스터디 좋았음(4-a) -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을 만날 수 있어 좋았음(2-b)
경기여성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 의미, 소속감에 도움(4-c) - 경기여성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성인지교육의 기회 수시로 있음(4-e) -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활동하는 것 의미있는 시간(4-c)/ 성비를 고려 남성 참여 독려(4-c)

- 청년들은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젠더인식의 격차를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하면서 전 생애에 걸쳐 실용적인 성인지교육이 필요하고, 관련 콘텐츠 및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그리고, 성평등한 직장문화만들기, 젠더공감 나우 등의 성평등활동은 참여자들에게 태도와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므로 관련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소통과 공감을 위한 장

- 청년들은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성차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지식과 교육이 동반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음.
- **(공감소통의 장)** 젠더갈등은 자신이 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공감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과 소통의 장은 필요하며, 이때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안전하고 평등한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중재자도 중요함.
- **(양성평등주간 공론장 마련)** 양성평등주간에 경기도가 지향하는 성평등문화와 이슈를 중심으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음.
 - 이때 경기도의 문화사업과 결합하거나, 양성평등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방안도 제안함.
- **(성차별 현황 및 구조에 대한 정보 전달)**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차별이 무엇인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차별 상황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함.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팩트 체크, 성평등과 안전 이슈의 관련성 등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 등을 설명해 주기를 요청함.
 - 유리천장, 여성혐오 또는 독박육아, 경력단절 현실, 정상가족 강조 문화에 따른 문제점 등 속의 토론을 위한 정보가 필요함.
- **(생애별, 대상별 다양한 교육)** 청소년기부터 노인기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 대상의 교육도 중요함.
 - 그 외에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 위원회 대상의 성인지 교육 등도 제안하였음.
- **(다양성, 존중, 평등가족문화 등)**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으로는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발달단계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상호 존중 문화,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관련 정책 요구는 <표 3-7>을 참조할 수 있음.

[표 3-7] 소통과 공감의 장에 대한 요구

구분	내용
공감 소통의 필요성	- 젠더갈등은 자신이 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공감의 문제로 필요
공감 소통을 위한 규칙	- 공감 소통의 장 운영 시 갈등이 되지 않게 중재자 역할 중요(1-e) - 안전하고 평등한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 환경 조성 필요(2-b)
공론의 장: 양성평등주간 행사	- 경기도가 지향하는 성평등문화,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4-e): 남녀강사 초청 이슈 토론 등/ 공개적으로 논의/ 경기도의 마스코트와 같이 문화적인 장점 결합 - 양성평등실천 기업 사례 발표(4-a)
지식과 정보 전달 필요	- 차별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 수준, 이미지 제공 그래야 소통 가능(3-d) - 상대방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공감이 됨(4-c) - 경기 여성, 차별 상황을 시각화 하는 것이 중요. 독박육아, 경력단절 현실, 정상가족 강조 문화에 따른 문제점, 속의 토론을 위한 정보가 필요. 균형있는 정보 접근(3-b) -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고 유리천장, 여성혐오 등 구체적으로 교육(4-b) - 잘못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 바로잡기(4-e) -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팩트 체크(2-c) - 성평등/안전 이슈 어떻게 결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3-d)
생애별, 대상별 다양한 교육	- 공감, 소통이 되려면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함. 학교, 직장에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한다(3-c) - 학교 교육에 성인지교육 의무화(1-c): 정기 수업 - 2차 성징 시기 연애, 신체 변화 성인지교육 필요(2-e) - 중3 학생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1, 2학년때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으로 늦음(2-c) - 청소년 대상 교육: 인터넷 영향을 많이 받음(5-c) - 발달단계별 성인지 교육(1-f) -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지교육 전면적으로 실시: 노인인식개선(1-a) - 50-60대 대상 참여; 성평등교육 등. 청년문제로 방관하지 않도록(4-b) - 체대, 공대와 같이 남학생이 많은 쪽에 기회를 줌(1-e) - 남중, 남고, 공대, 군대/여중, 여고, 여대. 서로를 이해할 기회 부족. 성인지교육이 더 중요(3-d) - 공공도서관 활용 성인지교육, 책모임 지원(2-d) - 고위 공직자 대상의 원탁토론회(1-a)/ 기존 위원회 성인지 교육(3-e) - 교육 모니터링, 추적, 콘텐츠 반영 효과성 있는 교육체계(3-c)
교육 내용	- 발달단계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형식(2-d)/ 전 생애별 포괄적 성교육(2-b) - 존중에 기반해 다름 이해, 그렇지 않으면 젠더갈등 해소 어려움(3-a). - 성장과정의 가족문화가 중요.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 필요(3-a) - 차별 전반으로 접근하여 성차별도 인식하도록. 성차별 하면 거부감을 갖는 경우 많음(3-f). - 양성평등, 상호존중으로 변화(3-a) - 성별, 정상가족 강조하지 말고 다양한 삶을 보여주기(3-b)
교육 방식	- 사례 중심 강의: 세바시 같은(4-a)
연구	- 여성현황, 인권 조사 등 연구 조사 중요(4-b)

다. 남성 통합을 위한 주제

- (남성 관심 이슈는 군대 문제) 양성평등정책의 남성통합을 위하여 다루기를 기대하는 젠더 갈등의 주요이슈는 군대문제이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음.
 - 국가가 남성의 몸을 함부로 하는 점, 군대내 폭력 및 인권의 문제로 다루기를 기대함.
- (10대 남성 청소년 등) 양성평등정책에서 주목할 정책 대상으로 인터넷의 영향을 받는 10대 남성 청소년, 가사 및 돌봄 역량을 필요로 하는 남성, 비혼부 남성, 딸 있는 아빠, 가부장문화에 익숙한 중년세대 남성 등이 거론됨.
- 한편, 양성평등정책에서 여전히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성은 지지해 주는 역할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관련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표 3-8>과 같음.

[표 3-8] 남성 통합을 위한 주제

구분	내용
이슈: 군대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에서 총기사고. 그런데 왜 여성은 군대 안가느냐는 적절하지 않은 댓글. 군대 문제에 좀 더 관심 갖고 소통(4-e) - 군대내 인권 문제(1-b) 휴대폰 보급되어도 여전히 인권 문제 존재 - 군대 문제 적극 쟁점화. 국가가 남성의 몸, 노동력을 함부로 하는 문제 : 여성이 징병대상이나 아니냐, 특권이 아닌가 라는 접근이 아님. 소통방식 변화(남성이 화나는 이유는 남들 스펙 쌓을 때 군대간다는 것. 군문제 해결 공론화(2-d)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부 경력단절 문제/ 갱년기 남성 문제(1-a) - 1인 돌봄 교실: 가사 등에 익숙하지 않는 남성 대상(2-b) - 장애 남성, 이주민 남성(3-e) - 딸 있는 아빠들 모임(5-b): 딸이 경력단절 되는 것을 상당히 아쉬워함 - 중년 남성 성인지교육: 차별을 안하려고 하나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음(5-c) - 청소년 남성 대상 성인지교육: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높음(2-d) - 10대 청소년 남성 주목: 학교 성교육 자료가 최신화되어 있지 못함. 청소년을 위한 젠더교육 콘텐츠 발굴(4-b)
지지자로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여성페미니스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 남성은 지지해 주는 역할(3-b)

라. 다양한 활동 그룹 형성

- 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그룹을 확산하는 방안으로, 양성평등 공모전 및 정책제안 등과 같은 활동참여 요구가 높았고, 양성평등 콘텐츠 제작 지원, 캠페인, 플랫폼 구축, 성평등 기업 문화 조성, 협력사업 추진 등이 제안됨.
- **(공모전 등 참여 활동 선호)** 청년세대는 활동을 통한 참여를 선호하였으며, 양성평등 공모전, 공익광고 공모전과 같이 대학생이 참여과정에서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활동에 대한 보상(상, 상금)이 주어지는 활동을 선호했음.
 - 그 외 정책 공모전, 청춘 페스티벌, 백일장, 성평등 진로체험 박람회 등도 제안함.
- **(성평등활동 그룹 지속성에 관심 기울이기)** 관심을 가져야 할 그룹으로 성평등교육 및 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음. 청소년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청년 성평등 활동 강사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활동가를 육성하는 사업을 제안함.
- **(성평등 동아리활동 지원 지속)** 성평등 동아리 활동은 새로운 주체발굴에 효과적인 사업이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업을 지속하고, 새로운 남성 주체 발굴 및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음.
- **(양성평등 콘텐츠 제작 지원)** 성평등인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과 그 활동을 지원하며, 인터넷 기반의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제안함.
 - 유튜브, SNS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영화 지원, 웹드라마 제작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콘텐츠가 필요함.
- **(청년 접근성 제고 및 플랫폼 구축)** 청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견도 많았음. SNS를 활용한 홍보, 광고 등 숨 쉬듯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해 젠더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기업의 성평등활동 지원)** 성차별적인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성평등 기업 경영을 돕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인식했음.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연계할 수 있고, 양성평등 실천 기업을 인증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음.
- **(협력을 통한 성인지교육)**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과 연계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협력 워크숍을 추진하거나 청소년대상의 교육 강사들과 연계하여 성인지교육을 추진하는 방안, 기타 기존 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활동 등도

제안됨. 다양한 활동 그룹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안은 <표 3-9>와 같음.

[표 3-9] 다양한 활동 그룹 형성

구분	내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주제 공모전 (1-a)/ 양성평등 홍보 대상, 공모전(4-a) - 정책제안 대회/ 정책 공모전: 열심히 공부하게 됨(1-b) - 성평등 동아리 활동 지원 지속, 동아리활동지원/ 네트워킹 가능 - 극단의 입장끼리 소통하기보다 지지그룹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3-a) - 여성/남성이 서로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 기회: 군대, 임신 등(1-d) - 대학생 양성평등 공모전: 공익광고 공모전: 경기버스 배포(1-a)/ 상금, 권위있는 상 - 청춘페스티벌 - 초중고 양성평등 백일장(1-a) - 성평등 진로체험 박람회: 성고정관념이 심한 직종들(1-a)
관심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활동가 네트워크: 고립, 소진 방지.(2-d) - 청년 성평등강사 육성 및 지원 : 청소년 세대와 소통(2-d) - 풀뿌리 성평등활동가 양성(2-e) - 성평등활동 지원 사업: 성평등활동 그룹을 강화 - 새로운 남성 주체 발굴, 남성 활동가 네트워크(2-a)
콘텐츠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콘텐츠: 유튜브, SNS 콘텐츠, - 독립영화 지원: 성평등을 키워드로 하는 작품 - 웹드라마 제작, 개그맨 유튜브 활용(5-a) - 인터넷 매체 활용 콘텐츠 제작(5-c)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 버스 위주 홍보 탈피: 인스타 등(4-b) - 틱톡, 인스타 릴스에 연결한 챌린지 - 지역 축제 활용 버스 홍보: 숨쉬듯이 접할 수 있도록(1-a) - 광고 등 노출, 캠페인(3-b) - 양성평등 관련 자료 정기적 자료 배포: 소셜 네트워크 활용(4-e)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홍보 플랫폼: 성인지교육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2-c)
기업 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업 우수사례 발굴: 기업 설명회에 소개(4-a) 기업의 노력 발굴 /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과 연계 - 양성평등 실천 기업 인증(4-a)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여성가족재단 컨소시엄: 성평등교육 활동가 네트워크, 활동지원(2-d) - 문화행사를 통한 성교육: 성인지교육 결합(5-a) - 문화예술, 음악치료를 성교육, 흡연예방교육에 결합: 강사 대상으로 성인 지감수성 교육(5-b), 성교육 프로그램 연계 워크숍
기존 구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장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장 활용: 위원회 성비, 성인지감수성 교육/ 성별과 함께 세대 고려(3-e) - 거버넌스 활동에 여성 대상에 변화. 공무원조차 남성이 여성거버넌스에 있느냐는 질문/ 여성가족재단도 명칭 변경(4-e) - 여성거버넌스: 성평등 + 가족, 돌봄 이슈 등 다양한 주제로 접근(4-e)

IV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논의
2. 정책과제

1. 연구결과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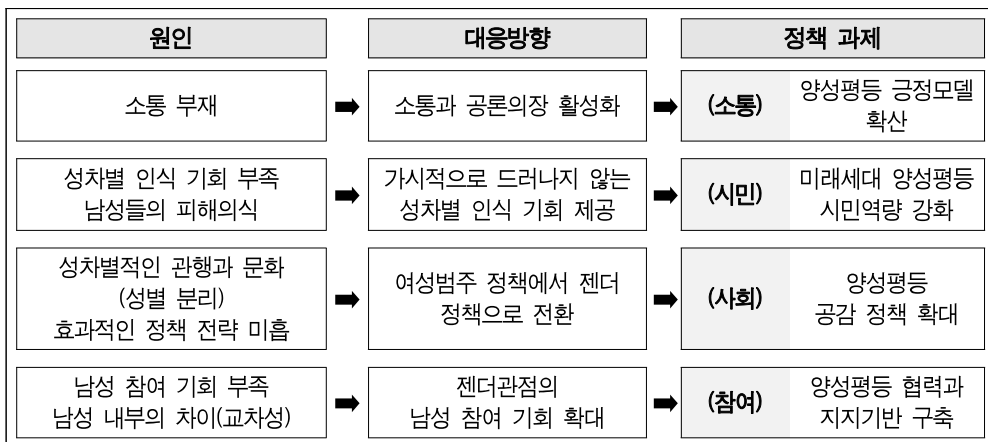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발굴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청년대상의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워킹그룹은 젠더갈등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토의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정책과제를 제안, 검토하는 역할을 하였음.
- 워킹그룹에서는 젠더갈등 현상의 원인을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음.
 - 첫째, 젠더갈등 현상은 젠더에 관한 인식 격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성차별 인식 기회 부족, 남성들의 피해의식, 소통부재를 원인으로 함.
 - 둘째, 젠더갈등의 배경으로 성평등정책이 여성범주에서 젠더정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점이 논의되었음. 성별화된 사회구조의 변화, 젠더 관계 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여성 대상 패러다임에서 효과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교차적 관점에서 남성내부의 차이에 주목하지 못하여 남성들의 정책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고, 남성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이 부재하였음.
-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및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고, 양성평등 의제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위한 공론장 마련, 여성범주 정책에서 젠더 정책으로 전환, 젠더관점의 남성 참여 기회 확대 등이 주요하게 토의됨.
- 전문가 워킹그룹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과제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청년들은 젠더갈등을 다층적,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별 갈등이 아닌, 젠더인식 격차에 따른 차별, 위계 등의 문제로 더 인식하고 있음.
 - 청년들은 가족, 학교, 직장, 일상 등에서 성역할고정관념과 차별관행, 가부장적인 위계로 인한 갈등 상황을 젠더 갈등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 온라인, 정치권의 젠더갈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거나 대화가 활발하지 않으며, 가족, 학교, 직장 등에서 경험한 성역할고정관념과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젠더갈등으로 이해하는 비중이 높았음.
- 성역할고정관념 및 차별적 관행은 청년세대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정한 기회에 접근하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가정 및 학교에서의 진로 결정, 돌봄 및 가사 참여를 위한 역량의 습득, 직장에서의 동등한 대우 및 존중,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이 제한되고 있음.
- 남성 내부에도 위계 등으로 인한 발언권 등의 격차가 있고, 정책적으로 서로 다른 요구가 있으나 남성 집단으로 일반화되는 문제가 있음.
- 양성평등정책은 젠더화된 사회 구조 개선을 지향하고 있으나, 개인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 조직에서의 변화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논리 제공이 좀 더 필요함.
- 성평등이 개인 모두의 잠재력 실현, 공정한 기회, 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 가치를 제시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면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논리가 필요함.
- 개인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접한 청년들은 많지 않으며, 학교에서 접한 교육은 주로 형식적인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이었음.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인식함.
- 언론과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성인지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함.
- 양성평등 참여 활동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해 성평등 인식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포용적 관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 경기도의 아빠하이, 젠더공감 나우, 여성거버넌스,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풀뿌리 성평등활동 지원사업 등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갖도록 하며 지지그룹 형성에 도움이 됨.
- 젠더갈등 사안에서 자주 거론되는 군대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은 군복무로 인해 개인의 잠재력 실현 기회가 제한되는 점과 군대 조직에 만연한 폭력과 인권 문제로 접근하여 청년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다루어주기를 요청함.
- 군대 문제를 개인의 기회 실현, 인권과 폭력 등 양성평등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젠더갈등에 대응하여 양성평등정책은 청년세대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불평등한 관행과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긍정모델을 발굴·확산하며, 성평등실현에 공감·참여하는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필요함.
- 따라서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서 젠더화된 사회의 문제를 남녀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성역할규범, 가부장적인 권력과 위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작동하면서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동등한 기회를 제한하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대해 청년세대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한편, 젠더갈등의 한 축에는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폭력과 안전문제, 성차별을 유지, 강화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모색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양성평등정책이 도민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공정한 기회 축진에 기여하는 정책임을 제시하고 다양성 존중에 기반한 평등과 포용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함. 둘째 성차별, 폭력 등에 대한 문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 확산하고,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평등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함. 특히 영유아, 청소년, 청년 대상의 기회 성인지력 향상 기회 확대, 양성평등 콘텐츠 및 사례 발굴·확산, 접근성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등의 개발이 필요함. 셋째, 양성평등을 위한 참여, 공론 기회를 활성화하고, 양성평등 활동 지원을 통해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방향이 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제를 ‘양성평등 긍정모델 확산’, ‘미래세대 성평등 시민역량 강화’, ‘양성평등 공감 정책 확대’, ‘양성평등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으로 제안하고자 함.

[그림 4-1] 연구결과 요약



주: 연구진이 구성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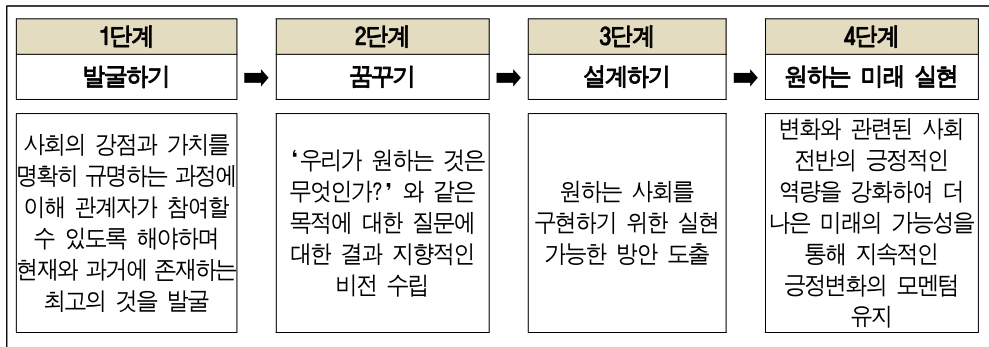
2. 정책과제

가. 양성평등 긍정모델 확산

1) 배경

-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이 도민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공정한 기회와 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임을 이해하고, 다양성 존중에 기반하여 평등과 포용사회 실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전문가 워킹그룹에서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성평등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함께 나누는 활동이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논의하고 AI(Appreciative Inquiry) 접근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AI식 접근은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최고 상태에 대해 발견하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 부여의 단계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상상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식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상호협력적이고 상호친화적인 접근으로 네 가지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 대화의 사이클로 이뤄짐(유준희 외 역, 2009, pp. 61-62).

[그림 4-2] AI식 접근 단계



주: 워킹그룹 전문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인용함.
 자료: 유준희 외 역, 2009.

- AI를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 주제의 선정(affirmative topic)으로 우선 젠더갈등 대응은 양성평등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표현될 수 있음.⁶⁾

6) 이 문단은 워킹그룹 전문가의 제안서 일부를 인용한 것임.

-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에 ‘젠더갈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양성평등한 사회’가 더욱 상세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년들은 양성평등 실천과 공감을 위해서 젠더화된 사회구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하면서, 양성평등 실천의 긍정적인 사례를 배우며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따라서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양성평등 긍정모델의 발굴과 공론의 장을 조성하고, 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함.

2) 목적

- 성평등정책이 도민 모두를 위한 정책임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인식 확산
- 양성평등 긍정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 조성 및 도민참여
- 성평등정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3) 관련 사업 현황

- 경기도는 양성평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양성평등주간사업 기념행사, 성평등 캠페인을 추진해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실천모델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 기업 등을 포함한 공론장 조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표 4-1]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사업 현황

사업명	2023예산	대상	주요 내용
양성평등주간사업	45,000천원	경기도민, 여성단체	- 9월 첫째주 양성평등 주간에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여성(NGO)단체 연계 행사, 우수사례 등 연구 발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성평등 캠페인 추진	10,000천원	도민, 도·시군 공무원, 도 공공기관 임직원	- 일상 속 고정관념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인식을 개선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추구함. - 일상 속 성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동요 개사 도민 공모전을 개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사진전 개최. 수상작을 활용한 성평등 캠페인을 추진함.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4) 제안 사업

가) 청년 양성평등 콘텐츠 발굴 공모전⁷⁾

- 청년들은 젠더갈등을 해소를 위해서 성평등 시민역량이 필요하고, 성인지각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 활동의 참여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함. 양성평등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며, 성인지각수성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평등 및 젠더 이슈와 관련된 구체적 경험들을 꺼내어 이야기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청년들은 정책대상 및 공모전과 같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수상의 기회가 주어지는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통해, 젠더갈등 문제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공모분야는 카드뉴스, 에세이,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동화책,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들 수 있는 숏폼 영상, 웹툰, 일러스트, 문학작품, 사진, 웹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로 접근함.
- 관련 공모전 수상작은 경기도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사이트(<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확산함.
-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 콘텐츠에 담긴 가치·의미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

나) 양성평등 원탁포럼

- 젠더갈등의 원인이 되는 소통 문제를 해소하려면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함.
- 청년들은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성평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숙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또한 차이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참여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에 성평등정책의 지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긍정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공론의 장을 활용하여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원탁회의는 양성평등주간 또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성별, 세대,

7) 워킹그룹 참여자 제안서를 일부 인용함.

지역, 직업 등을 대표한 도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구성해야 함.

- 원탁회의의 주제는 청(소)년의 성평등 활동, 소년과 남성 참여, 양성평등 기업 경영,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온 조직, 학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활동 사례 등이 될 수 있음.
 - 운영방식은 긍정모델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정책적으로 반영하거나 도민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토의함.

【사례】 캐나다 원탁회의 「Calling Men and Boys In」

- 성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성과 소년들을 가장 잘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
- 전국에서 온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남성·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및 프로그램을 다루는 지역사회기반 조직의 대표자, 학계, 지역 사회 지도자 및 장애인, LGBTQ2 사람들, 노인, 원주민, 인종별 커뮤니티, 학생, 청소년, 신앙 기반 조직, 민간 부문, 노동 부문 등임.
- 원탁회의는 워니펙, 토론토 등 9개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그 외 학생, 캐나다 청년, 직장, 기업 참여와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하여 주제별 상담을 진행함.

자료: WAGE(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2019).

다) 양성평등 팩트 체크 사업

- 청년들은 양성평등 실천과 공감을 위해서 성차별 현황과 사회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제공을 필요로 함. 또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 세대는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인터넷 기반의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평등 시민역량이 필요함.
 - 성별 격차의 현황을 이해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양상되는 왜곡된 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으로 확산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평등 전문가, 콘텐츠 기획자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콘텐츠를 제안함. 제안된 콘텐츠는 전문 업체에서 시각화하여 도민에게 전달함.

나. 미래세대 양성평등 시민역량 강화

1) 배경

- 청년도민들은 성역할고정관념, 성평등인식 격차에 따라 가족, 학교,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 갈등상황을 모두 젠더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역할고정관념과 가부장적인 문화가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함.
- 그렇지만, 성역할태도를 형성하는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성평등인식과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접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실시한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은 형식적이었다고 인식하였음.
- 이에, 젠더갈등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등사회 실현에 적극 동참하는 청년세대 성평등 시민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청년세대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법 개발을 통해 참여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목적

- 성평등·인권 기반의 시민역량을 갖춘 청년도민을 확대하기
- 영유아, 청소년, 청년 친화적인 다양한 양성평등 콘텐츠 및 방법론 개발

3) 관련 사업 현황

- 경기도는 성별격차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일상에서의 성평등인식강화 교육을 통해 도민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에는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양성평등 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표 4-2] 도민 대상 성인지교육 사업 현황

사업명	2023예산	대상	주요 내용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운영	30,000천원	학교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 군부대 등	- 교육 취약계층 및 도내 교육문화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젠더갈등을 완화하는 기회 마련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공감up, 프로젝트 공모사업	40,000천원 (성평등기금)	청소년 및 청년	- 청년, 청소년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 (2023년 3개 사업 지원)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

4) 제안 사업

가) 게임, 미디어 등 디지털 기반 인권, 성인지감수성 교육 개발 및 플랫폼 구축

-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청년세대의 성평등 시민역량이 필요하며, 성평등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좀 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특히 게임, 미디어 등 디지털 기반 활동에 익숙한 청소년 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성인지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권 및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청소년세대를 고려하여 게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실시할 수 있는 성인지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게임, 미디어 개발은 공모방식으로 추진함. 경기도가 주관하고, 청년 IT 개발자가 참여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안서를 내고 심사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로 선정하는 방식임.
-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또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사이트(<https://www.gseek.kr/member/rl/main.do>)를 활용해 탑재할 수 있음.

【사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GAZTEAKBERDINTASUNEAN 2.0” 프로젝트

- 다양한 시나리오와 특정문제에 직면하는 온라인 모험(비디오게임)
- 비디오게임 참여자들이 성차별, 혐오, 폭력등과 관련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단위 및 워크시트를 제공함.

자료: Emakunde- Basque Institute for Women. (2022).

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커뮤니티 발굴 프로젝트⁸⁾

- 청소년 및 청년들의 자기정체성과 커리어발굴의 과정 속에서 젠더 인식과 감수성을 키울 기회가 거의 없음. 특히 남성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안전하게 자기다움을 표현하고 공유할 커뮤니티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커뮤니티의 부재는 곧 또래집단과 사회 속에서 형성된 남성성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기회가 부재한 상황으로, 남성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함.

8) 워킹그룹 전문가 제안서를 발췌, 정리함.

- 크게 3가지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각각 개별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1단계: 젠더렌즈를 통한 남성들의 서사 발굴 및 수집으로 남성을 특정 기준(연령이나 직업, 지역)으로 분류해 생애 인터뷰와 같이 서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임.
 - 2단계: 대화의 장 혹은 공론장을 통해 청년 혹은 청소년(혹은 일반 남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제로 대화 혹은 공동의 활동을 하고 이를 성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 3단계: 성평등 커뮤니티 및 활동 발굴 단계로 청년 혹은 청소년(혹은 일반 남성)의 자기 다음 서사 발굴 및 성평등문화 확산 관련 활동과 커뮤니티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임.
- 각 단계별 프로젝트들은 성별 구분없이 청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남성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남성 혹은 남성 청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도한다면 처음부터 큰 규모로 하기 보다는 이 취지를 잘 이해해나갈 코어 그룹을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다) 세대공감 프로젝트: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⁹⁾

- 현재의 청년들이 생애주기적으로 젠더화된 격차(노동시장격차 → 노후소득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세대 간-세대 내 연대성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짧은 역사로 인해 약 40% 이상의 노인이 빈곤선 이하에 있음. 젠더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또한 젠더 격차가 심함. 여성 노인 1인가구인 경우, 약 70%가 빈곤가구임.
 - 자기이해(self-interest)가 결부되는 부모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고양함과 동시에 젠더화된 노동시장 및 수급구조에 대해서도 인식을 높일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이해, 국민연금/퇴직연금/민간보험 안내, ‘우리 엄마 연금 찾아드리기’ 개인별 과제 시행 및 사례 발표,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 토론(적정부담수준), ‘내 연금은 얼마?’ 를 통해 노후소득 극대화방안 논의(크레딧 등)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PBL(Project Based Learning) 수행 시 가입여부, 가입종류, 지금까지의 납부(기여) 기간,

9) 워킹그룹 전문가 제안서를 발췌, 정리함.

추가적인 크레딧 또는 합산, 과거 환급금 재납부 기능기간, 노후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해야 함.

- 연금 문제와 같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제를 선정하여 세대/젠더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양성평등 아동, 영유아 놀이문화 확산 사업 추진¹⁰⁾

- 아동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평등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아동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와 언어, 장난감, 교재교구, 놀이, 공간배치 등 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도와 시군이 영유아 놀이문화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선정하여 개선안을 만들어간다면 성평등한 보육·교육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경기도 성평등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 이때 교사, 놀이지도사의 성인지각수성 제고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해 성평등한 영유아 교재교구 공모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사례】 스웨덴 이갈리아 유치원

- 스웨덴의 이갈리아(Egalia) 유치원은 유치원의 교재와 교구를 비롯한 교육과정 전반에서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이나 정상가족에 대한 편견을 학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중립 유치원(Gender Neutral Preschool)으로 알려짐.
- 스톡홀름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으로 모든 장난감, 책, 자료, 태도 등 성평등 관점에서 고려됨. 특히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단어 대신 중립적인 대명사를 사용하며, 이는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성별을 구분할 때 성평등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교육 철학에 근거함.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편견을 덜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러한 내용을 부모들에게도 고지해 가정에서도 성평등 가치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례】 EU 젠더 룹스 프로젝트(Gender Loops Project)

- 젠더 의식 및 평등한 유아 교육을 위한 도구상자(Gender Loops Toolbox for gender-conscious and equitable early childhood centres)
- EU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통해 독일,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페인, 터키에서 2006년~2008년까지 실행된 젠더 룹스 프로젝트(Gender Loops Project)를 통해 개발된 커리큘럼¹¹⁾.
- 커리큘럼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성주류화의 실현과 이해를 위한 다양한 법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 관련 이론 등을 다루며 과정 내에는 교육자 훈련, 유아교육 기관의 젠더협력 모델, 유아교육 현장의 남성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권장사항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육 방법론을 제시
- 이를 통해 개발된 도구상자는 인식제고, 사물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기, 교육적으로 행동하기, 성평등교육을 위한 구조적 지원의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유아교육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함.

자료: 마경희 외. (2016). / Gender Loops Prokect 홈페이지

10) 워킹그룹 전문가 제안서를 발췌, 정리함.

11) <https://genderloops.dissens.de/about-the-project> (최종검색일: 2023년 6월 14일).

다. 양성평등 공감정책 확대

1) 배경

- 청년들은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양성평등정책이 여성을 범주로 추진되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함. 성역할규범과 위계에 따른 차별, 갈등의 해소는 필요하지만 여성만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 성역할규범과 위계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가족, 직장, 사회 전반에 작동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이 추진되어 왔음. 그렇지만 성역할고정관념과 성별화된 환경으로 인한 불편을 남성도 경험하고 있으며, 남성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별을 이해하고, 남성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는 정책은 양성평등정책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임(왜소한 남성, 돌보는 남성 등).
- 청년세대는 자기돌봄을 위한 역량을 필요로 하며, 직장내의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에 관심이 높음. 경기도가 추진해 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고 양성평등기업 사례를 발굴, 확산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소년과 남성을 양성평등정책에 통합하기 위해서 관련 지식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남성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지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2) 목적

- 양성평등정책이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 사례 발굴
- 기업(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성평등 경영 및 조직문화를 지원하고 확산
- 남성통합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및 관련 추진체계 구축

3) 관련 사업 현황

- 경기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민간 기업의 공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3]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양성평등 사업 현황

사업명	2023예산	대상	주요 내용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확대	-	경기도 공공기관 27개 대상	- 도내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사업 - 여성대표성,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 개발, 일·생활 균형, 기타의 5개 분야에 만들어 성평등관리지표를 구축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함.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80,000천원	도내 소재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예비 취업자	- 공공에서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인식 전환 캠페인을 추진하여 남녀 차별 없는 공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임. - 찾아가는 사업주, 노동자 교육, 성평등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 책자 발간

자료: 경기도 내부 자료

4) 제안 사업

가)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사업 : 성별화된 환경, 관행 등¹²⁾

- 우리 사회의 정책은 중립적이라고 가정되지만 성역할고정관념과 불평등 관행, 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인 요소들이 정책, 공간, 문화, 일상 등에서 작동하고 있음.
- 성차별적인 제도와 정책을 성인지관점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성주류화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고,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같이 일상의 환경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선된 제도 및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함. 예를 들어 여성주차장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 돌봄을 하는 주체를 위한 주차장이지만 용어로 인해 여성만을 우대하거나 여성의 능력을 절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이는 정책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의 문제이면서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최근에는 여성이 많은 집단, 활동에 있어 남성들이 고려되지 못하여 남성이 불편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탈의실 등).
- 따라서, 청년들이 정책을 직접 모니터링 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개선의

12) 워킹그룹 참여자 제안서를 일부 인용함.

여지를 탐색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

- 일상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문제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성별 불평등 구조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안을 제언하는 활동임(여성주차장 → 돌봄 동반 주차장, 배려 주차장/ 요가시설 탈의실 → 남녀 모두에게 제공).
- 모니터링 주제: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성별화된 공간의 문제, 저출생 정책, 한부모 정책, 1인 가구 정책,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모니터링해 볼 수 있음.

나) 양성평등 경영 협약 및 확산 사업

- 경기도는 도내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표로 여성대표성, 성평등한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일·생활 균형 등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음.
- 경기도내 소재 기업의 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내 임금 차별, 차별적인 조직문화, 성희롱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특히 청년세대는 기업의 성차별적인 관행, 위계적인 문화 개선에 관심이 높고, 일자리 선택에 있어서 일생활균형 등 성평등 조직문화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기업 경영의 실천 모델을 만들고, 그 사례를 확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양성평등 기업 경영의 기준을 지표로 제시하고 양성평등 기업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과의 협약을 추진하며, 실천 기업의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기업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의 ESG경영과도 연계할 수 있음.
- 방식은 양성평등 기업 경영 및 직장문화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과 경기도가 협약을 맺고, 매년 양성평등 기업 및 공공기관의 실천 사례를 발굴하며, 관련 사례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다) 남성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및 지식 구축¹³⁾

- 성평등정책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관한 차별적 시선, 고정관념 등이 개선되고 있음. 반면 남성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실행에 있어 남성의 시각을 반영한 경우는 많지 않음.
- 젠더갈등이 아닌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남성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및 지식 구축이 필요함. 전통적 남성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양한 남성 집단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등을 통해 향후 경기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함.
- 연구 및 지식 구축은 조사연구뿐 아니라 남성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
 - 남성성 이해 프로젝트, 남성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관련 경험을 조사할 수 있음.

【사례】 다큐멘터리 <The Mask You Live In>

- 2015년 Jennifer Siebel Newsom이 각본, 감독,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미국 주류 문화에서 정의하는 협소한 남성성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년과 청년을 인터뷰하였음.
-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남성성을 이해할 수 있음.

【사례】 UN Women Training Centre 의 “젠더화된 자서전(gendered autobiography)”

- 젠더화된 자서전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
- 교육생에게 자신이 어떻게 젠더화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글을 쓰도록 요청하여 평생 동안의 경험과 젠더 규범에 대한 행동을 작성하도록 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방법임. 이를 통해 훈련생은 사회적 규범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안주했는지 등을 파악함.

자료: 워킹그룹 제안서 / Glinski, et al. (2018).

라) 소년과 남성 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담당부서(팀) 및 예산 확보

- 양성평등정책에 소년과 남성을 통합하기 정책을 포함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함.
 - 독일 연방정부에서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과’ 를 둔 것을 참고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국 내에 관련 추진 부서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임.

【사례】 독일 연방정부 연방평등부 평등국 소속의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과>

- 독일 연방정부는 2009년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연방평등부)의 평등국내에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과> 설치하고 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 운영함.
- 주요 사업은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정책, 평등한 진로 및 학업선택을 위한 성평등정책,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소년의 날·소년의 미래 등임.

자료: 임혜경, 백소운. (2023).

13) 워킹그룹 전문가 제안서를 일부 인용, 정리함.

라. 양성평등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

1) 배경

- 유엔에서는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남성과 소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젠더관계는 사람간의 연결 및 구별의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은 다른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됨. 성별 관계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일상, 종교, 법적 개념, 사람의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배열(가정과 직장의 분리)에 깊숙이 내재함. 따라서 남성과 소년은 젠더문제에 필연적으로 관여함(Connell, 2003).
- 젠더갈등 감소를 위해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정책과의 협력을 통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성주류화 전략과 맥락이 같음).
- 청년들은 여성거버넌스, 지역 성평등활동 지원사업이 성평등인식과 참여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함. 이에 관련 활동에 남성참여를 할당하여 남성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의 성평등활동 지원사업들이 유지, 확대되기를 희망함.
- 남성의 페미니즘 및 성평등교육 활동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남성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 성평등교육에서 청년 남성 강사의 역할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그렇지만 청년들의 성평등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소진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직업 활동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 청년들은 양성평등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타겟 집단을 선정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예: 딸을 둔 아빠). 또한 가부장적 인식이 강한 기성세대와의 젠더 인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함.

2) 목적

- 양성평등정책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도민 남성 확대
- 경기도정 전반의 균형 참여와 성평등관점 협력 확대(성주류화 촉진)
- 청년, 다양한 세대 및 가족들의 성평등활동 지원으로 성평등지지그룹 확대

3) 관련 정책 현황

- 경기도양성평등센터에서는 지역 성평등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젠더공감 나누, 풀뿌리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사업에 대하여 청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표 4-4] 경기도양성평등센터 지역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현황

사업명	2023예산	대상	주요 내용
젠더공감 나누 3기	15,000천원	남성	경기도 남성과 함께 하는 젠더공감 서포터즈단 구성, 성평등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젠더 파트너십 구축
젠더공감 풀뿌리 활동 지원 사업	20,000천원	경기도내 소모임	지역내 풀뿌리 소모임 역량 강화 및 성평등활동 지원 사업

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4) 제언 사업

가) 양성평등정책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협력 사업¹⁴⁾

- 청년참여기구가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모니터링 하는 전 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경기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하고 경기도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 협력 및 교류하는 등 청년의 소통과 참여에 관한 일들에 관여함.
- 청년참여기구 정책적 역량 강화 교육 및 주요 활동에 있어 양성평등 관점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주요정책 모니터링 운영 시, 핵심지표에 따른 평가와 양성평등 관점의 평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 청년참여기구 양성평등교육 필수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 역량강화 교육 운영 시, 정책 역량 함양과 더불어 양성평등교육을 필수화 하여,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청년참여기구 청년정책 모니터링 시행 시, 양성평등 관점을 추가할 수 있음. 현재 경기도 주요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지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핵심지표 개발 시, 양성평등 관점 역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고려함. 이외에도 모니터링 추진 시, 모니터링단 평가위원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14) 워킹그룹 전문가 제안서를 받쳐, 인용함.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 후, 각종 위원회, 협의체 등의 기구 전면 적용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참여 청년의 선정 방안, 활동범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나) 젠더공감 나누 시군 확대 및 남성보이스 구성

- ‘나부터 우리부터’ 라는 주제로 젠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경기양성평등센터의 남성 대상 사업을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
 - 젠더공감 나누는 남성이 주체적으로 양성평등인식을 확산하고 실천 활동을 강화하여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임.
 - 2021년부터 1, 2, 3기가 운영되었으며 모든 기수의 공동 참여를 통해 남성 양성평등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
- 본 사업을 시군으로 확대하여 남성 주체 성평등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한 경기도 조성 및 젠더 파트너십을 공고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남성보이스를 구성해 남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함.
 - 남성보이스는 지역, 직업, 세대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함.

【사례】 독일 연방남성포럼

- 연방남성포럼은 남성 정치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양성평등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협회와 정치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지점임.
- 포럼은 연방 및 주정부의 성평등정책에 소년, 남성, 아버지가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련 조직의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독일 여성위원회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십을 위한 노력을 추진함.

자료: 임혜경, 백소운. (2023).

다) 온/오프라인 자기돌봄 커뮤니티 형성 및 활동 지원¹⁵⁾

- 양성평등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차적 관점으로 젠더화된 삶을 재구성하고, 구시대적 남성성/여성성에서 벗어나 자기 돌봄과 타인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양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15) 워킹그룹 전문가 제안서를 일부 인용함.

- 자기돌봄, 구직활동, 경제생활 등 젠더화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성평등한 삶을 확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동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플랫폼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온오프라인 퀘스트를 통한 미션을 수행하며 리추얼을 나누고 함께 학습하는 커뮤니티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음.
-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풀뿌리 소모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지지그룹을 형성할 수 있음.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노인 세대와 같이 전 세대가 양성평등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연계함.
- 커뮤니티 주제로는 육아휴직 낸 남자들, 성평등 영화보는 남자들, 요가하는 남자들, 딸과 평등하게 소통하고 싶은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라) 성평등교육활동 협력사업

- 경기도에서 성평등교육활동을 하는 청년, 성교육을 하는 문화강사들과 연계하여 협력 워크숍 및 네트워크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청년 교육 활동가의 소진방지 및 지속가능을 위한 네트워크 및 워크숍, 성평등관점의 성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포괄적 성교육 추진을 위한 협력 워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마. 추진 방안

- 본 연구는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과제로 양성평등 긍정모델 확산, 미래세대 성평등 시민역량 강화, 양성평등 공감정책 확대, 양성평등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을 제안하고 관련 사업을 제시하였음.
- 제안사업은 아이디어 정도이지만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 기획 모임을 꾸려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 제안 사업 및 추진 방안과 관련해 다음 <표 4-5>에 제시하였음.
 - 비교에 추진주체를 재단으로 제시한 사업은 연구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사업으로 연구 및 시범 사업 추진 후 도시군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

[표 4-5]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과제 제안사업(안)

정책과제	제안사업	정책대상	추진방안		비고 (추진주체)
			단기	중기	
양성평등 긍정모델 확산	청년 양성평등 콘텐츠 발굴 공모전	청년	○		도
	양성평등 원탁 포럼	도민	○		도
	양성평등 팩트 체크 사업	도민	○		도, 재단
미래세대 양성평등 시민역량 강화	게임, 미디어 등 디지털기반 인권, 성인지감수성 교육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청소년		○	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커뮤니티 발굴 프로젝트	청소년	○		도
	세대공감 프로젝트: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청년		○	도, 재단
	양성평등 아동, 영유아 놀이문화 확산 사업	영유아		○	도
양성평등 공감정책 확대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사업	청년	○		도, 재단
	양성평등 경영 협약 및 확산 사업	기업, 공공기관		○	도
	남성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및 지식구축	남성		○	재단
	소년과 남성 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도민	○		도
양성평등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 협력 사업	청년참여기구	○		도, 재단
	젠더공감 니우 시군 확대 및 남성보이스 구성	도민 남성	○		도, 시군
	온오프라인 자기돌봄 커뮤니티 형성 및 활동 지원	도민		○	도, 시군
	성평등교육 활동 협력사업	유관기관		○	재단

참고문헌

- 강준만. (2018).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한국여성의 인권 투쟁사**. 서울특별시: 인물과 사
상사.
- 강희영, 최유정. (2019).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 방안 연구**. 서울특
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고영란, 최나리, 김안나. (2021). **울산광역시 청년층의 젠더갈등현황과 대응방안**. 울산광역
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김기동, 정다빈, 이재복. (2021).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 **한국정치학회회보** 55(4).
5-42.
- 김보명. (2019). 젠더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비교문화연구** 56, 1~25.
- 김봉철, 신별. (2022). 젠더갈등 이슈에 대한 상호지향성 연구. **광고PR실학연구** 15(3). 67-96.
- 김엘리. (2020).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36(1), 139-173.
- 김원정, 김선아, 정윤미, 이성준, 윤빛나리. (2021). **청년세대 '젠더갈등'대응을 위한 성평등정
책의 과제**. 서울특별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란. (2019). **광주지역 여성혐오 실태 및 인식조사**. 광주광역시: 광주여성가족재단.
- 김하나. (2022). 20대 청년 유권자의 젠더 균열과 투표 선택: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115. 296-338.
- 류연규, 김영미. (2019).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
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131-160.
- 마경희, 김문길, 추지현, 김선기. (2020). **청년 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
책적 대응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마경희, 문희영, 김현경, 박지성. (2016).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논리와 추진
과제**. 서울특별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경. (2020). 젠더 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이념
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최보** 19(2). 5-36.
- 변화순, 양애경, 이선주, 문희영. (2011).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1)**.
서울특별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변화순, 장혜경, 김혜영, 전영주, 정재동, 구선영. (2005). **가족·성별 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 서울특별시: 한국여성개발원.
-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이소연. (2022). 여론속의 여론: 사회지표: 젠더갈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173(2). 9-36.
- 이재경. (2013). 한국사회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저스티스** 2013(2). 94-109.
- 임혜경. (2020). **경기도 20대 성차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임혜경, 백소운. (2023). 독일의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 사례 및 경기도 시사점. **이슈분석** 251(23-0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정다운, 옥소연. (2022). **부산지역 2030 청년세대 젠더인식 조사 및 대응방안**. 부산광역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정성조. (2019). 청년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 12-39.
- 정재원, 우대식. (2022).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성 교육: 해외 시민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3). 669-688.
- 정현백. (2021). **연대하는 페미니즘**. 경기도: 동녘.
- 정혜원, 김미정, 노경혜. (2021). **포스트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 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최중숙. (2020).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2040세대의 이념성형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5. 189-224.
- 홍지아. (2022).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2). 99-253.
- 홍찬숙. (2022). **한국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 변동: 세대 및 젠더갈등의 사회적 맥락**. 서울특별시: 세창출판사.
- BMFSFJ. (2020). *Gleichstellungspolitik für Jungen und Männer in Deutschland: Ein Dossier zur partnerschaftlichen Gleichstellungspolitik*. Berlin: BMFSFJ.
- Connell R. W. (2003). *The Role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prepared for expert group meeting on "The role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in

-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s on HIV/AIDS (UNAIDS),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Brasilia, Brazil, 21 to 24 October.
- Cooperrider, D. & Whitney, D. (2009). *Appreciative Inquiry*. 조직 변화의 긍정혁명(유준희, 강성룡, 김명언 역). 도서출판 쟁이(원저는 2005년 출판).
- Faludi, S. (1991).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an*. London: Vintage.
- Emakunde- Basque Institute for Women. (2022). *15 YEARS GIZONDUZ: THE ROAD TRAVELLED*. Basque: Emakunde- Basque Institute for Women.
- Emakunde- Basque Institute for Women. (2021). *GIZONDUZ INITIATIVE 2021 REPORT*. Basque: Emakunde- Basque Institute for Women.
- Glinski, A., Schwenke, C., O’ Brien-Milne, L., & Farley, K. (2018). *Gender Equity and Male Engagement: It only works when everyone plays*. Washington, D.C.: ICRW.
- Goss, B., & O’Hair, D. (1988). *Communicat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WAGE. (2019). *Calling Men and Boys In; What We Heard: Report from the Roundtables on Engaging Men and Boys to Advance Gender Equality*. Ottawa: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 <https://genderloops.dissens.de/about-the-project>.
- <https://www.bmfsfj.de/bmfsfj/ministerium/ministerin-hausleitung/organigramm>.
-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jungen-und-maenner>.
-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워킹그룹 제안서

부록

전문가 워킹그룹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서 1]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p>배경 및 필요성 주요목적</p>	<p>1. 인식 변화 : 많은 사회에서 성별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함. 이러한 인식은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차별과 불평등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 교육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도전하고, 성별에 대한 편견과 편협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p> <p>2. 평등 권리 인식 : 젠더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권리와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 교육을 통해 여성과 다른 젠더 집단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음.</p> <p>3. 성평등 가치 형성 : 교육은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성평등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젠더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는 불공정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고,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를 위해 교육은 성별 역할 모델, 성차별 예방, 성적 괴롭힘 대응 등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p> <p>4. 포용적인 환경 조성 : 젠더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사회와 환경을 조성해야 함.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젠더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양한 성별 표현과 신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며, 사회적인 차별과 배타성을 줄여나갈 수 있음.</p>
<p>추진내용</p>	<p>1. 문제 분석 및 조사 : 젠더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시적점. 여성과 다른 젠더 집단의 상황, 차별 현상,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 개발과 교육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함.</p> <p>2. 이해관계자 참여 : 양성평등정책과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함.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 여성 단체, 사회운동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야 함.</p> <p>3. 정책 개발 : 문제 분석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 정책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응하며,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춤. 임금 격차 해소, 성적 괴롭힘 예방, 여성의 정치적 참여 촉진 등을 다루는 정책을 수립함.</p> <p>4.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정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교육은 여성과 다른 젠더 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평등 가치 형성을 목표로 함. 성차별 예방, 임금 격차 인식, 성적 괴롭힘 대응 등의 내용을 다루며, 목표 대상과 교육 방법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p> <p>5. 교육의 효과적인 전달 :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함. 학교, 대학, 직장, 커뮤니티 등에서 교육을 실시함.</p>
<p>비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효과적일 것임. - 내용의 확산을 위해 현장 교육과 함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고려 - 2030들에게 노촌 헌팅포차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서 문제점을 얻고 홍보용 이벤트를 하는 것도 추천함.

[사업제안서 2] 남성(성) 이해 프로젝트

<p>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정책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관한 차별적 시선, 고정관념 등이 개선되고 있음. - 반면 남성에 관한 고정 관념이나 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실행에 있어 남성의 시각을 반영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사회적으로 성평등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이 있음(여가부 폐지 주장 등). - 정부의 양성평등정책이 ‘여성의 입장을 주로 대변한다’ 는 응답은 46%, ‘남성을 주로 대변한다’ 는 응답은 9%,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입장을 대변한다’ 19%, ‘모두 대변하지 않는다’ 14%로 나타나 여가부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여성 편향적’ 으로 인식하고 있음(한국리서치 2023.2월 조사).
<p>주요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 - 성평등정책을 모두의 정책으로 인식하게 함. - 젠더갈등이 아닌 사회통합을 목표로 함. - 성평등정책 변화의 중심, 경기도
<p>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성평등정책에 남성의 참여를 의무화함(할당제 등) - 여성에게 특화된 정책을 수립할 때 남성의 의견 반영(예: 여성친화도시 등) - 남성이 소수자일 경우 소수자 배려 정책 마련 - 여성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분야에 남성이 진출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 마련(예: 간호, 돌봄 등) - 남성의 마음 이해 프로젝트 진행(예: 남성은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한 왜소한 남성의 고민, 슬픈 감정의 표현, 가장이라는 책임을 지우는 것 등):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심리상담 지원, 제도나 규정에 남성을 가장, 강함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함.
<p>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멘터리 <The Mask You Live In>: 2015년 Jennifer Siebel Newsom이 각본, 감독,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미국 주류 문화에서 정의하는 협소한 남성성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년과 청년을 인터뷰하였음.
<p>비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마음 이해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일상 문제(ex.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들)를 경험하고 있는 남성들끼리 모이는 자조모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음. - 본 제안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하는 ‘젠더공감 나무’와는 성격이 다름. 이 프로젝트의 주체는 남성이며, 대상은 여성과 남성임. 남성이 다른 집단의 남성을 이해하고, 여성이 다양한 남성 집단을 이해하는 프로젝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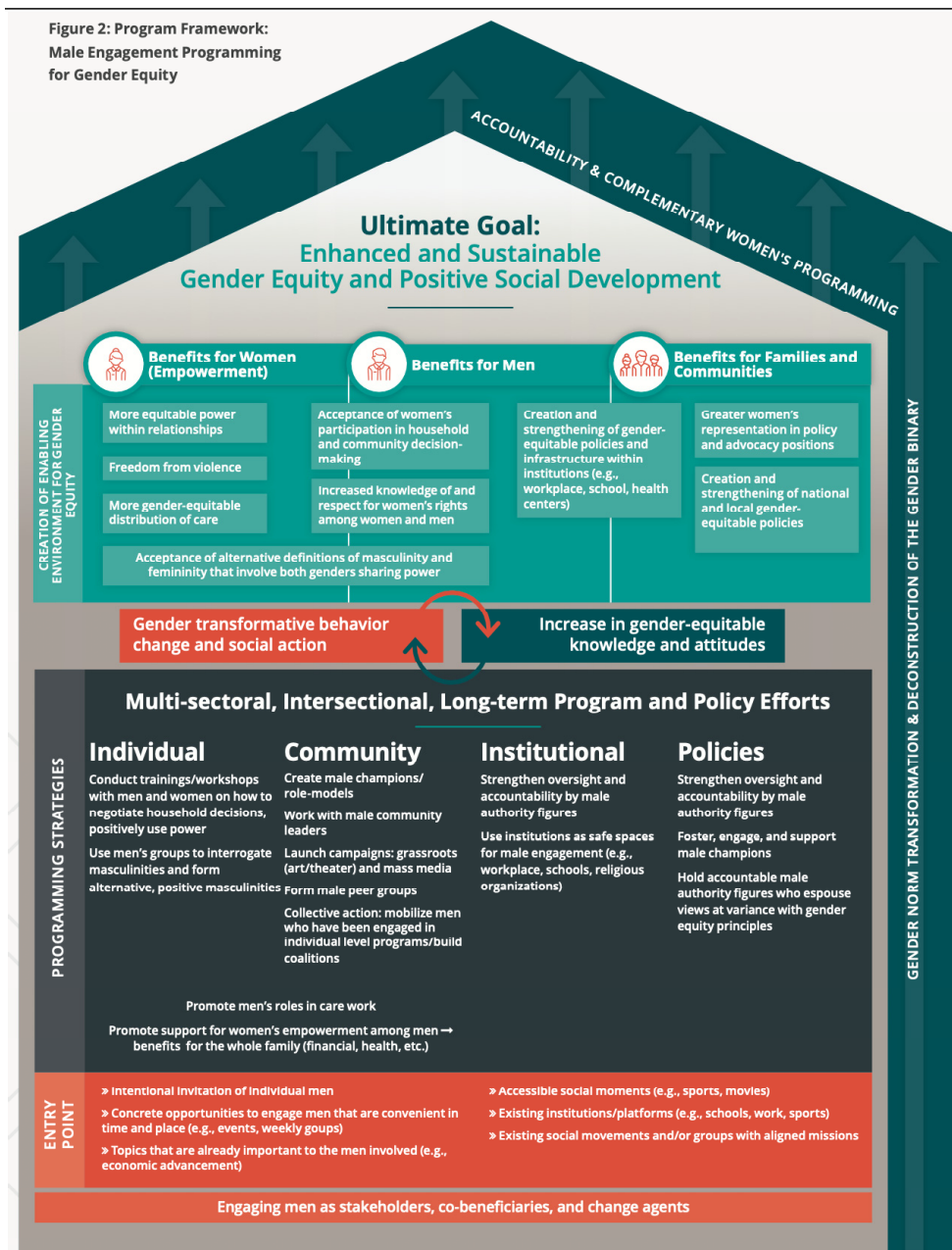
[사업제안서 3] 뭐 하는 사람들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차적 관점으로 젠더화된 삶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같은 성별을 가진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연령, 사회적 위치, 취업 여부 등 개인이 가진 배경에 따라 똑같지 않은 젠더화된 삶을 경험하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비슷한 그룹에게 새로운 경험의 장을 제공함.
주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시대적 남성성/여성성에서 벗어나 자기 돌봄과 타인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라이프스타일 제안 - 자기돌봄, 구직활동, 경제생활 등 젠더화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성평등한 삶을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뭐 하는 사람들> 소셜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 기반 SNS 어플리케이션 제작 (청년 IT 개발자 참여 유도) · 양성평등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소통의 장 제공 ·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성인지 특강 운영 · 참여자가 직접 모임장으로 다회성 소모임 또는 일회성 활동 꾸릴 시 지원 · 지원 형태 : 공간 지원 / 활동비 / 모임비 지원 · 안전하고 성차별없는 모임을 위한 수칙 제공 - 소모임 또는 일회성 활동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뭐 하는 남자들 (육아휴직 낸 남자들, 요가하는 남자들) · 뭐 하는 여자들 (내 집 장만하고 싶은 여자들, 풋살하는 여자들) · 뭐 하는 엄마들 (평등하게 육아하고 싶은 엄마들) · 뭐 하는 청년들 (성평등 영화보는 청년들)
비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공간 구성이라는 측면을 활용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뭐 하는 사람들이 소모임을 통해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나 '문제중심'의 모임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육아휴직 낸 남자들과 평등하게 육아하고 싶은 엄마들이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함께 모일 수 있는 소모임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지향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더욱 좋은 소모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청년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퀘스트를 통한 미션 수행이나 리추얼을 함께 나누거나 학습을 함께 하는 커뮤니티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음. -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플랫폼은 유용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기 보다는 '커뮤니티형성'이라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MZ세대를 겨냥한 커뮤니티 플랫폼, 예를 들면, 디스코드나 베이커 등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보임. - 공간 지원, 활동비, 모임비 지원과 함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모임을 수상하는 보상 등이 주어지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사업제안서 4]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남성의 역할 강조(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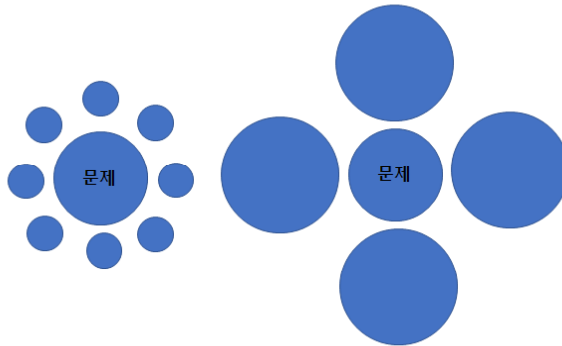
<p>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책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음. - 사례는 성평등을 위한 남성 관여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Gender Equity and Male Engagement: It only works when everyone plays’ 에 제시된 것임.
<p>주요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을 위한 남성 관여 프로그램 작성의 구조는 궁극적인 목표, 성평등이 가능한 환경으로서 여성/남성/가족 공동체의 목표, 달성 전략, 프로그램 전략, 진입 지점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평등과 긍정적 사회발전임. - 성평등이 가능한 환경 개발을 위해 여성, 남성, 가족 및 공동체의 목표를 제시함. 여성을 위한 목표는 관계에서 평등한 권력, 폭력으로부터 자유, 돌봄의 양성평등 증진을, 남성을 위한 목표는 가정 및 공동체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 수용, 여성과 남성사이에서 여성권리에 대한 지식과 존중,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안적 정의에 대한 수용을, 가족과 공동체 목표는 정책과 주요직책의 여성대표성 확대, 국가 및 지방의 양성평등정책의 개발과 강화 등을 제시함.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는 젠더 변혁적 행동변화와 사회 행동, 양성평등 지식과 태도의 증가를 제시함. - 프로그램 전략은 다분야, 교차적, 장기적 관점의 프로그램과 정책 노력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른 사업으로 ‘개인’ 은 가족내 여성과 남성의 대화와 관계변화를 위한 훈련 및 워크숍, 대안적이고 긍정적인 남성성을 형성하는 남성 그룹 활동을, ‘공동체’ 의 경우 남성 역할 모델 개발, 남성공동체 리더와의 협력, 풀뿌리와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남성 동료집단 형성, 남성과 함께 하는 집단행동을, ‘제도적’ 으로 남성의 책임성 강화와 남성 참여를 위한 안전한 공간 활용을, ‘정책’ 으로 남성의 감독과 책임 강화, 남성 참여 지원 등을 제시함하고 있음. - 남성참여를 위한 진입 지점으로는 개인 남성의 국제 초청, 시간 장소의 편리성을 제공해 남성의 접근성 높이기, 남성이 관심을 갖는 주제, 남성참여 가능한 활동 및 기관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음. - 이 사례는 관련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기보다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p>비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인 목표를 성평등과 긍정적 사회적 발전에 두고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고정 관념을 타파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남성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여성집단, 남성집단 따로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에 혼성집단을 꾸려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방법을 사업에 결합하는 것을 추천함. - 직관적인 모델을 제공함.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 More라는 단어가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음. ‘좀 더’ 라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또는 더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궁극적 지향이 평등에 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아 보임.

출처: Glinski, A., Schwenke, C., O' Brien-Milne, L., & Farley, K. (2018). Gender Equity and Male Engagement: It only works when everyone plays. Washington, D.C.: ICRW. p.29.



[사업제안서 5] 양성평등 확장을 위한 시의 활용

문제제기: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함에 있어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결함 기반 접근(deficit based approach)’임. 이 접근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여 그것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봄(Cooperrider & Whitney, 2005; 유준희, 강성룡, 김명언 역, 2008)¹⁶⁾. 이러한 접근은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지하며, 원인을 바로 잡아야만 결과가 좋아질 수 있음을 시사함.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에 대응하는 양성평등정책을 발굴하는 우리의 접근도 바로 이러한 결함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직선적 인과관계로는 더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현상의 장이며, 젠더갈등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우리가 초점을 두는 ‘문제’는 더 많이 다뤄질수록, 더 집중할수록 더욱 커져 보이는 특징을 가짐. 젠더갈등을 줄이기 위해 갈등에 초점을 두는 접근은 성평등을 확장하고자 하는 접근과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에 근거함.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순환적이며, 사회구성적인 대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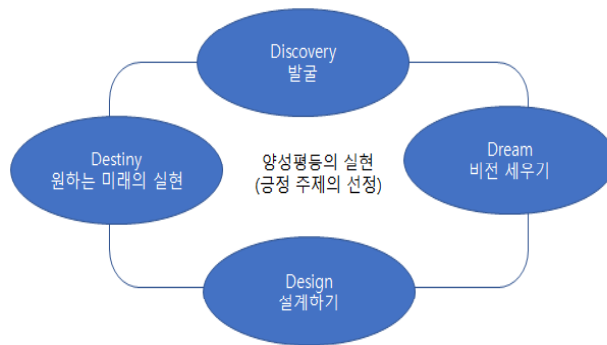


대안: AI(Appreciative Inquiry)는 사회와 조직 내의 긍정 변화(positive changes)를 이끄는 철학이자 실용적인 접근법임. 이는 인간, 조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최고와 최선의 가치를 찾기 위한 상호협력적인 접근으로서, 조직이나 공동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유준희 외 역, 2008). 이러한 접근에서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원하는 미래(preferred future)를 이룰 수 있는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가정함. 따라서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젠더갈등과 관련한 사회 일반의 부정적인 견해,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대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가치를 직접 발견하고, 원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꿈꾸며, 이러한 사회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임.

아래의 표는 결함에 기반한 문제해결식 접근법과 AI식 접근법을 비교한 것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I식 접근은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최고 상태에 대해 발견하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 부여의 단계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상상,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식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상호협력적이고 상호진화적인 접근임.

문제해결식 접근	AI식 접근
<p>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문제의 규정 ↓ 원인 분석 ↓ 분석과 가능한 해결안 ↓ 실행계획 수립</p>	<p>최고 상태에 대한 발견과 가치 부여 ↓ 가능한 미래에 대한 상상 ↓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토론</p>

특히, AI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네 가지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 대화의 사이클로 이루어짐(유준희 외 역, 2008, pp. 61-62).



첫 번째, AI 과정의 핵심 4단계는 발굴하기로 시작함. 사회의 강점과 가치를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에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와 과거에 존재하는 최고의 것을 발굴함. 두 번째 단계는 꿈꾸기 단계임. 앞 단계에서 발굴된 잠재력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 지향적인 비전을 세우는 단계임. 세 번째 단계는 설계하기 단계. 원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도출함.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원하는 미래의 실현 단계로, 원하는 변화에 관련된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역량을 강화함.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통해 지속적인 긍정변화의 모멘텀을 유지함.

함의: 이러한 시를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굴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시를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 주제의 선정(affirmative topic)으로 우선 젠더갈등 대응은 양성평등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표현될 수 있음. 양성평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일 지에 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임.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상상은 그러한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첫 단계임. 모두가 원하는 성평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청년세대가 더욱 자세히 상상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먼 미래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임.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대의 소명임. 이는 우리 모두가 이미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여성과 남성이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를 마련하는 것은 소중한 출발점임. 그럼에도, 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의 대화가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시를 통해 대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협력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시는 우리 사회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최고의 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해 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의 당위(rationale)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불평등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기존의 접근은 태생적으로 갈등을 유발함. 물론 생산적인 갈등은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가 적지 않지만, 시를 통해 더 평등한 사회의 대안을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협력적 대화를 통해 창조해 갈 수 있는 대안도 가능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길 기대함.

<p>비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제안의 기초는 ‘스토리텔링 동물’ 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념을 표현한 것임.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감. 따라서 양성평등이 갈등의 정치적 담론이 아닌 협력의 사회적 담론으로 기능하기 위해 갈등이 아닌 함께 살아감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기능적이며 협력적 언어의 활용이 필요함. 예를 들면 우리의 프로젝트도 젠더갈등이 아닌 양성평등에 초점을 두자는 연구자의 제안이 있었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핀더)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몇 해 전 우리에게 익숙했던 ‘중 2병’ 과 같은 언어는 중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단편화시키고, 성장의 고통을 더욱 부정적으로 보게 한 잘못 사용된 언어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컸음. 중학생들을 성장을 병리화시킴. 자살을 ‘극단적 선택’ 으로 표현하는 요즘의 언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식의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양산해 내며, 이는 자살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우리의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이를 표현하는 우리의 일상적 언어를 살피고, 나아가 갈등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언어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미래(preferred future)’ 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의 방향을 이끌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남성이 추가 되어온 기존 세대의 언어를 수정하는 작업임. PGA와 LPGA가 구분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실임. 기존의 PGA를 G(Gentlemen)PGA로 바꿀 필요가 있음. 그러나 L의 Lady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짓는 용어이므로, 이를 Women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우선은 GPGA와 WPGA. 나아가 Woman과 Man을 구분할 때, Mankind가 ‘인류’ 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도록
----------------------	--

	<p>우리가 사용하는 기존의 언어를 들여다보며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우리의 스토리텔링 또는 서사를 좀 더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바꿔가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전 세대가 원하는 양성평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임.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에 ‘젠더갈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바라는 ‘양성평등한 사회’가 더욱 상세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사회복지나 돌봄 영역에서 결핍이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장을 마련할 때 ‘불만’이 주요해지고, 우리와는 무관한 솔루션이 제안되면서 문제의 당사자이자 참여자의 역량강화와는 거리가 먼 논의가 진행될 때가 많음. 성평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스토리와 내러티브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유용해보임.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목표와 긍정적인 주제어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번 정책발굴에서 역시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긍정적인 용어로 과업의 주제어를 변경하면 좋을 것임.
--	--

16) Cooperrider, D. & Whitney, D. (2008). Appreciative Inquiry. 조직 변화의 긍정혁명(유준희, 강성룡, 김명인 역). 도서출판 쟁이(원저는 2005년 출판).

[사업제안서 6] 인권과 연계한 젠더 이슈 발굴 및 콘텐츠 개발

<p>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요구하는 청년 여성과 그것의 결과를 역차별, 불공정으로 인식하는 청년 남성 간의 인식격차가 젠더갈등으로 증폭되고 있음. - 젠더갈등, 여성혐오의 문제는 인권, 다양성의 측면에서 성평등에 접근하고, 청년층, 온라인 문화 내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젠더이슈와 함께 성평등정책,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에 대한 반감도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성평등을 내세우기 보다 인권, 다양성 이슈로 접근하여 차별과 혐오, 갈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p>주요 목적</p>	<p>여성혐오, 차별의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평등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격감하고 청년층의 인권 및 성평등 인식을 제고함.</p>
<p>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주요 사업 중 인권작품 공모전(공모전 운영 및 시상), 인권페스타 사업(인권관련 토론펬션, 부대행사 등)이 있음. - 경기도 외 많은 지자체에서 인권 공모전을 통해 인권 에세이, 인권 카드뉴스 등이 생산되고 이를 시상하고 있는데 인권 공모를 통해 생산된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을 제안함. - 성평등이슈를 인권 및 다양성 이슈로 접근하여 거부감 없이 성평등 및 젠더 이슈와 관련된 구체적 경험들을 꺼내어 이야기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홍보함으로써 청년층의 인식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청소년, 청년 대상의 성평등 작품 공모전 기획도 생각해 볼만함.
<p>비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뉴스나 에세이 외에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동화책이나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들 수 있는 숏폼 영상 등도 좋을 것 같음. - 인권작품 공모전이나 인권페스타 등의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혐오나 차별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 이러한 접근도 필요하나 더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혐오나 차별이 해결된 모습에 대해 청소년과 청년의 상상을 자극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인식전환과 적절한 언어의 활용이 중요함. - 청소년, 청년 대상 성평등 작품 공모전에 있어 콘텐츠를 웹툰, 일러스트, 문학작품,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며 수상작의 확산을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년이 성평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되면 좋을 것임.

[사업제안서 7] 성평등 아동, 영유아 놀이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2012)에 의하면 유아기는 주변에서 보이는 대로 성역할을 그대로 따라 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우며, 이분법적인 성역할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음. - 영유아의 성별화된 경험과 또래문화가 성별 이분법적인 틀로 생성된다면 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된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과 젠더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이에 평등한 놀이문화를 확산하여 아동과 양육자에게 모두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보육을 위한 놀이 교사 훈련, 교구 및 교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 목적	<p>아동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평등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아동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와 언어, 장난감, 교재교구, 놀이, 공간배치 등 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p>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민선8기 「영유아 교재교구 보급 및 놀이코칭 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 여성정책과는 정책의 성형평성을 점검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군 공통사업을 지정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이에 도와 시군이 영유아 놀이문화사업을 공통사업으로 선정하여 개선안을 만들어간다면 성평등한 보육·교육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경기도 성평등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사례	<p>스웨덴 성평등 어린이집/유치원 시범사업 실시와 확대 (마경희 외,(2016)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논리와 추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비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영유아 교재교구 공모전을 열어도 좋을 것 같음. 성평등 어린이집/유치원 사업이라고 했을 시 쉽게 신청할 기관이 많을 것 같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 의복과 색상 등에 있어서도 어린 시절 성고정관념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사업제안서 8]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 사업

□ 모니터링 활동 목표

- 청년 단원들이 각기 성별의 입장에서 ‘생활 속 안전’이라는 영역을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봄으로써, 그 속에 숨어 있던 성별 불평등을 발견
 - ‘젠더’ 개념을 혐오와 차별의 맥락으로 호명할 때 동원되는 주요 분야들의 실태를, 청년들의 눈으로 직접 점검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개선의 여지를 탐색
 - 특히, 일상 안전 영역의 공간적·관계적 요소들 속에서 성적모욕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잠재된 요소들을 청년 참여자들이 각 성별의 입장에서 검토, 개선의 여지를 탐색
 - 공간적·관계적 요소들을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숙의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
 - 일상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의 한계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성별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본질에 접근,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안 제언

□ 모니터링 대상

- 젠더 개념을 혐오와 차별의 맥락에서 호명할 때 동원되는 주요 분야들 중, ‘생활 속 안전’ 과 관련된 다음 세 가지 지점을 모니터링

1. 시설 안전 분과(화장실)

- 취지: 성별에 따라 분리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 수행
 - 시설의 설비와 환경이 성적모욕감·성폭력 위험성으로부터 취약한 공간적 특성을 띠고 있는지 성별 시각에서 파악
 - 이용자 성비가 편향된 시설의 경우, 성별분리 이용시설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 설비의 접근성과 사용성 그리고 위험성에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발견되는지 모니터링
 -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 시설 속에서 젠더고정관념의 구조적 영향력을 확인, 개선의 여지 탐색
 - 시설 안전 분과 지표 예시(홍선영 외[2014]의 성인지적 관점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지표를 토대로 재구성)¹⁷⁾

2. 성폭력 예방 교육 분과

- 현행 젠더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청년들의 교육 수요와 현행 교육자료 사이의 간극이 있는지 점검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젠더 폭력 예방교육의 방향 설정 및 개선안 제시
 - 소속 대학 및 직장 등에서 제공되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자료를 검토
 - 청년 남녀 모두에게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골고루 그리고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학습자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성별고정관념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
 - 성폭력 예방 교육 분과 지표 예시(최영미 외[2022]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용 콘텐츠의 영역 및 요소 지표를 토대로 재구성)¹⁸⁾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분과

- 현행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홍보자료의 내용과 안내자료에서 연령과 성별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지, 청년들이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
-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촉진하는 요소와 저해하는 요소를 잠재적 수요자로서의 청년들의 관점에서 확인
- 이를 종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 방식 개선안에 대해 제언

비고(의견)	- 이러한 사업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 각 분야별 지표를 개발해 일상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

17) 홍선영, 이옥경, 황인주.(2014). 성인지적 관점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지표 개발.

18) 최영미, 오송석, 정현용.(2022). 대학생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 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7(6), 1297-1307.

[사업제안서 9] <우리 엄마 연금 찾아드리기> 프로젝트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짧은 역사로 인해 약 40% 이상의 노인이 빈곤선 이하에 있음. 젠더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또한 젠더 격차가 심함. 여성 노인 1인가구인 경우, 약 70% 가 빈곤가구임. - 현재의 50대 역시 비슷한 상황임. 자기이해(self-interest)가 결부되는 부모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고양함과 동시에 젠더화된 노동시장 및 수급구조에 대해서도 인식을 높일 수 있음.
주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청년들이 생애주기적으로 젠더화된 격차(노동시장격차-->노후소득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 세대 간-세대 내 연대성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추진내용	<p><노후 준비는 지금부터>(가제) 교육과정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이해 - 국민연금/퇴직연금/민간보험 안내 - ‘우리 엄마 연금찾아드리기’ 개인별 과제 시행 및 사례 발표 -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 토론 (적정부담수준) - ‘내 연금은 얼마?’ 통해 노후소득 극대화방안 논의(크레딧 등)
비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문제와 비슷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대/젠더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함 - PBL 수행시 확인할 점: 가입여부, 가입종류, 지금까지의 납부(기여) 기간 확인, 추가적인 크레딧 또는 환산, 과거 환급금 재납부 가능기간 확인, 노후 예상 수령금액 확인 등 - 청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재정이 함께 중첩된 문제로 보여 호응이 높아보일 것이라 여겨짐. - 실질적인 혜택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유효하며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을 살피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 있다면 기대하는 세대간의 연결, 성평등 관점 등이 더 잘 발현된 것으로 보임. - 청년층의 관심을 반영한 흥미롭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함. 경제 문제로 시작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그 과정에서 젠더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임.

[사업제안서 10]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협력 사업>

<p>배경 및 필요성</p>	<p>- 「청년기본법」,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정책 공식 거버넌스 기구가 경기도 역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10조의 2, 3항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참고] 경기청년참여기구 역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2. 경기도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에 관한 사항 </div> <p>- 청년참여기구가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모니터링 하는 전 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p>
<p>주요 목적</p>	<p>- 청년참여기구 정책적 역량 강화 교육 및 주요 활동에 있어 양성평등 관점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운영</p> <p>- 경기도 주요정책 모니터링 운영 시, 핵심지표에 따른 평가와 양성평등 관점의 평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p>
<p>추진내용</p>	<p>1. 청년참여기구 양성평등교육 필수화</p> <p>- 청년참여기구 역량강화 교육 운영 시, 정책역량 함양과 더불어 양성평등교육을 필수화 하여, 교육 및 워크숍 추진</p> <p>2. 청년참여기구 청년정책 모니터링 시행 시, 양성평등 관점 추가</p> <p>- 경기도 주요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지표 개발 추진 중</p> <p>- 핵심지표 개발 시, 양성평등 관점 역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p> <p>- 모니터링 추진 시, 모니터링단 평가위원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실시</p>
<p>비고(의견)</p>	<p>-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 후, 각종 위원회, 협의체 등의 기구 전면 적용으로 확대</p> <p>- 향후 참여 청년의 선정 방안, 활동 범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p>

[사업제안서 11]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커뮤니티 발굴 프로젝트

<p>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청년들의 자기정체성과 커리어발굴의 과정 속에서 젠더 인식과 감수성을 키울 기회가 거의 없음. - 여성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당사자와 당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기다움을 찾고 여성의 서사를 탐구하는 장이 온오프라인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별 구분이 없는 경우에도 탐구의 방식과 방법이 좀더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반면 남성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안전하게 자기다움을 표현하고 공유할 커뮤니티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커뮤니티의 부재는 곧 또래집단과 사회 속에서 형성된 남성성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기회가 부재한 상황임. - 최근 성별을 떠나 자기다움을 찾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20대부터 40대까지 성별을 떠나 많아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소년, 청년 특히 남성 청소년과 청년들이 안전하게 스스로의 서사를 찾아가고 나누는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해보임.
<p>주요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렌즈를 통한 남성들의 자기 서사 발굴 - 건강한 젠더 인식을 공유하고 강화해나갈 커뮤니티 발굴 및 액셀레이팅 - 남성 청소년, 청년들 친화적인 접근 방법론 개발
<p>추진내용</p>	<p>추천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의 방식으로 각각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연계되었을 때 특히 순차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효과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p> <p>[1단계] 서사 발굴 및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을 특정 기준(연령이나 직업, 지역)으로 분류해 생애 인터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서사를 발굴하고 이를 기록하는 프로젝트 - 이 과정은 커뮤니티 발굴과 접근법 개발을 위해 사전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단계임(이 과정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이들을 발굴하기도 함) - 예시) 진저티프로젝트의 밀레니얼 연구 <p>[2단계] 대화의 장 혹은 공론장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혹은 청소년 (혹은 일반 남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제로 해서 대화나 혹은 공동의 활동을 하고 이를 성찰해보는 자리를 마련함. - 이 과정에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로 발전되는 경우가 생김. - 특히 이 과정이 Peer to Peer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고, 공감, 위로, 격려를 통해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게 될 수 있음. - 예시) 유스보이스의 TMI, 씨닷의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라이프웨어의 대화카드 리트릿 <p>[3단계] 성평등 커뮤니티 및 활동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혹은 청소년 (혹은 일반 남성)의 자기다움 서사 발굴 및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활동과 커뮤니티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 발굴 예상 사례) 넥스트젠멘(캐나다)의 디스코드 커뮤니티, 마인크래프트 서클, 미래 남성성 서밋, 챗봇 개발, 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크루 등

<p>비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프로젝트들은 성별 구분없이 청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수 있음. 이럴 경우, 남성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대화의 장 혹은 공론장 운영시 1차로 성별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2차에서 모든 성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성별 자기 고민과 타인의 고민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함. -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커뮤니티가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함. 특히 남성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미래 남성성 서밋을 진행할 때 ‘미래 남성성’이라는 용어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기존의 언어적 문법 속에서 분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기존의 남성성을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양성평등한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면 ‘(미래) 양성평등 서밋’ 과 같은 대안이 고려될 수 있음. - 1단계 서사 발굴에서 앞서 이야기된 AI 인터뷰 방식으로 통해 긍정적인 지점과 미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역량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남성 혹은 남성 청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도한다면 처음부터 큰 규모로 하기 보다는 이 취지를 잘 이해해나갈 코어 그룹을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보임. - 제안된 내용에서 남성 청년 프로젝트로 보이나 단계적 접근을 통해 성별 구분없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해보임. - 청소년과 청년의 참여를 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남성 이해와 남성 서사 발굴, 남성 커뮤니티 지원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